

19대 국회는 歷史에 죄짓지 말라

나는 분노한다. 솔직히 우리의 대표로 뽑힌 이들의 면면을 보면서 울화통이 치민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저 새누리든 민주통합이든 보스들이 점지한 자들이 담벼락에 붙은 후보로 얼굴을 내밀었고 우리는 마치 못해 그들 중 한 명을 선택했을 뿐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명령에는 대의제도와 그 바탕을 이루는 선거제도가 있다. 그 대의제도와 선거제도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대표를 뽑고 그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4기를 지내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들 가운데엔 현자도 있을 것이다. 정말이지 우리의 내일을 고민하는 큰 그릇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예욕으로 가득차 가슴속엔 시민을 경멸할 뿐인 2류들도 있을 것이다. 벌써 드러나길 그들 중엔 논문을 표절해 박사학위를 받은 자도 있고 제수를 능욕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도 있다. 뇌물을 받아먹은 파렴치범도 있고 폭력배도 있고 김일성 김정일을 동지라며 흠모하는 자도 있다.

이들이 과연 우리 스스로 선출한 자들인가. 명색이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법문을 구성하는 자구의 무서움을 아는 자가 몇 명인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민의가 모인 의사당에 나라 역사를 제대로 읽은 자가 몇 명이며, 그 이전에 이 나라 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자가 몇 명인가. 도대체 우리

의 모든 걸 맡겨도 되는 도량과 인품을 갖춘 이가 몇 명인가.

나는 여기서 공자(孔子)의 말씀을 옮겨야겠다. 공자가 제(齊)나라 태산(泰山) 밑을 지날 때 어떤 여인이 목놓아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공자는 수레를 멈추고 제자 자공(子貢)을 보내 연유를 물었다. 그 여



전원책

·정치평론가
·변호사
·자유기업원 원장

그러니 게으르거나 무식하거나 아니면 시민보다 제 이익에 눈이 먼 자들이 하는 정치를 견디느니, 그러한 정치가 없는 별판에서 차라리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게 낫다. 그런데 이 고사를 읽고도 가슴이 철렁한 국회의원이 몇이나 되겠는가. 아니 역정을 내는 의원 나리도 있을 것이다. 예

은 형법을 방치한 채 온갖 특별법을 만들어내면서 법안을 많이 만든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다. 친일파를 욕하던 자신들이 부끄럽지 않은가.

보편적 복지를 한다면서 무상보육에 드는 재원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웃음거리가 되면서 선거판에선 무상의료나 반값등록금이니 오만가지 사탕발림을 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4년 동안 보스 눈치보고 아부하는 시간에 국민들 생각을 반쯤어치라도 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굼아터졌을 것인가. 걸핏하면 의사당에 폭력이 난무하고 스스로 대의정치를 포기하는 듯 멀쩡한 의사당을 두고 거리에 나가 시위하는 걸 민주주의로 이해한다면 그들은 우리들의 선량아 아니다.

어떻든 선거는 끝났다. 또 4년이 지나갈 것이다. 4년 뒤 언론은 19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무능했던 국회라고 공격할 것이고 정치평론가는 이제야말로 제대로 선량을 뽑자고 외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정치의 엄중함을 말해야겠다. 정치란 무릇 지혜와 경륜의 장(場)이다. 지혜가 모자란다면 4년 동안 밤을 새워서라도 자신을 뽑아준 백성들을 위해 공부해야 될 일이다. 보좌관이 적어준 문구나 물어대려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까짓 의원직을 훌훌 털어버릴 일이다. 역사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의원직이 보통 어려운 자리이겠는가. 그 두려움을 모르고 의원이 된 자들에게 보내는 클라크의 경구가 있다.

‘정치인은 국가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만, 정상배는 자신의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의사당폭력 · 길거리정치 이제 그만 다음세대 생각해야 진정한 정치인

인이 답하기를, 시아버지가 범에 물려 죽은 뒤 남편이 범에 물려 죽었으며 다시 아들이 범에 물려 죽어 운다고 하였다. 자공이, 그렇다면 어찌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하면서 이 곳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물었다. 여인은 다르아나라 이 고을에는 까다로운 정치가 없기 때문에 머물러 살고 있다고 하였다. 자공이 들은 바를 공자에게 고하자, 공자가 자공에게 일렀다.

“소자야, 기록해 두어라. 까다로운 정치는 범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를 들자면 그들은 한미FTA 비준을 동의하면서도 ISD조항이 무언지도 몰랐던 자들이다. 아니 멋모르고 찬성한 자들보다 한미FTA야말로 이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면 열렬히 지지하다가 야당이 되자 매국노가 만든 조약이라고 샅대질하던 자들이다. 그들이 집권했을 때 만든 조약이니 그들 스스로 매국노가 되는 이치도 모르는 자들이다. 한미FTA가 옳든 그르든 정치판이 이렇게 돌아가서야 말이 안 된다. 광복 후 한 6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일본 형법을 물려받

대한언론인회 - 병무청 '공정병역 협약' 체결

대한언론인회 회원대회장과 김영후 병무청장은 지난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 S-타워에서 '공정병역 협약서'에 서명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병역 협약은 각단체가 자발적 실천을 통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의 가치가 우리 사회 저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작년부터 병무청 주관으로 행사를 갖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대한변호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20여개 단체 대표들이 참가했다.

△사진=회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오른쪽)이 김영후 병무청장으로부터 협력단체 현판을 받고 있다.



安保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고조로 절망적 상태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예상외로 잘 싸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해 다시 제1당으로 복귀한 것은 놀라운 기사회생(起死回生)의 역전 드라마다.

‘정권심판’을 내걸고 실정(失政)의 탓을 이명박~박근혜 공동책임론으로 묶어 집중 공격한 야권연대는 총선에서 참패했다.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한 성적은 새누리당 당사자들도 의아해 했다고 한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새누리당이 잘 싸우기도 했지만 그 보다는 진보당과 손을 잡은 민주통합당의 선거전략이 빈약한 데다 잇단 자충수로 지지표를 잠식해서 ‘차려놓은 밥상’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이다.

먹이지 않은 ‘정권심판론’

야권연대가 이번 총선에서 최대 이슈로 내걸었던 ‘정권심판론’은 유권자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했다. 따라서(우리가 집권하면 MB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야당의 버거기는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에 역부족했다고 보아야 한다. 한명숙 대표는 가는 곳 마다 정권심판론을 소리 높여 외쳤지만 유권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심판하겠다는 것인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데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에게는 또 하나의 악재인 민간인 사찰문제도 선거구민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여서 정권심판으로 연결시키기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실적으로 꼽히는 한미 FTA 체결문제도 그로 인해 농·어촌이 입을 타격 말고는 거시적인 눈으로 본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간 거래라는 점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

문에 일부 야당의 원(정동영의원)의 주장처럼 ‘을사늑약’이니 뭐니 하면서 무효화 시켜야 한다고 떠드는 소리가 역지논리로 인식돼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야권연대가 이런 문제들을 자주 물고 늘어지니까 불안을 느낀 전국의 보수층과 중도세



지용우

·본회 논설고문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중복세력 국회진출로 시험대 올라 대통령선거 국민 현명한 판단 기대

력이 “정권을 심판하자”고 외치는 야당들을 오히려 심판한 꼴이 된 셈이다.

박근혜의 위력 증명

4·11총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새누리당을 진두지휘한 박근혜 위원장의 활약상은 매우 눈부셨다. 당명까지 바꾸는 데 앞장선 박근혜는 전국을 살살이 누비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다르다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변화’와 ‘쇄신’을 다짐했고,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의를 가는 곳 마다 천명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았다.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흔들린다 싶은 부산시 같은 경우는 다섯번씩이나 찾아가서 간곡히 호소하고 떠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믿고 가도 되겠죠?” 다짐까지 받는 열의로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었다. 그런 줄기찬 노력이 결실을 맺어 100석 정도를 건질 것으로 분석한 새누리당의 예상

을 깨고 152석이 나 얻어내는 저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제 새누리당은 총선승리에만 도취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 다시 당의 운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이익 보다 북한의 입장

을 대변하는 중복 좌경세력이 ‘선거’라는 이름의 합법을 위장한 민주주의 절차를 밟아서 국회로까지 대거 진출하는 마당이므로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은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셈이다.

좌경 진보세력 경계해야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국가안보만은 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 만큼 절대로 양보해선 안된다. ‘안보’마저 침해당하면 대한민국은 나라의 존재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의 절호의 기회라고 믿었던 민주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목전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위험한 급진세력(진보당)과 잘못된 ‘동거’를 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금년 3월 10일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에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양당

이 추진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이란 것을 발표했다. 좌파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그 색깔이 바뀔 수밖에 없고,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는 근간부터 흔들릴 것이다. 이번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어렵사리 승리한 것은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불만도 많지만 정체성이 모호한, 아니 좌파계열과 손잡은 민주통합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껴 제동을 걸었다고 보아야 한다.

당내 갈등은 자멸행위

문제는 새누리당이 총선승리의 여세를 대선가도까지 몰아가지 못하고 대선후보를 둘러싼 계파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당내갈등이 심각하게 증폭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총선승리의 축배를 들 사이도 없이 ‘친박’계 내부의 갈등과 ‘비박’계 3인방에 의한 경선룰 변경주장 등 당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연일 시끄럽다. 오죽하면 총선을 승리로 이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멸할 수밖에 없다”며 개탄했겠는가.

지금은 새누리당이 총선을 이겼다고 절대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대권까지 낚느냐 아니면 대권은 제1야당이나 안철수에게 넘겨주고 불안한 국정운용을 감수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결론은 하나, 당 전체가 계파를 초월해서 똘똘 뭉치는 길 밖에 없다. 총선승리를 위한 논공행상을 할 때도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총선승리의 일등공신인 박근혜 위원장도 필요하다면 기득권(대세론)을 포기하고 당내 일각에서 여론이 분분한 국민경선체제로의 ‘물’변경에도 동의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곧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는 길이다. [4]

4·11 총선이 끝난 며칠 후 나는 몇 명의 지인들과 함께 수원 근교의 광고산에 올랐다. 파릇파릇 돌아나는 나뭇잎

들의 신록(新綠)과 함께 온 산야는 연분홍색 진달래꽃으로 붉게 채색되어 있었다. 등산로 입구에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라는 김소월의 시비가 때를 맞춘 듯 우리를 반겼다. 진달래는 개나리, 벚꽃, 목련과 함께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해주는 반가운 화신(花信)이다. 진달래꽃은 지역에 따라 참꽃이나 두견화로도 불리며 사람들은 술과 떡으로 빚어 먹기도 한다.

어린 시절 뒷산에 올라 진달래꽃을

따먹고 손가락에 물을 들이던 추억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낭만적이고 우리와 친숙한 진달래꽃이 이념과 정치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진달래꽃은 북한의 국화이다. 그래

진달래 꽃과 통합진보당



정기정

·본회 부회장
·전 MBC 감사
·전 마산MBC 사장

서 더 조심스럽고 민감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1970년대 북한의 김일성이 가장 좋아했다는 ‘가극 피바다’는 “진달래꽃 머리에 꽃고 온 민족이 하나 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해방 춤을 흐드러지게 추는 그날까지 전진하자”는 클

로징멘트로 끝난다.

그런데 종속이론, 해방신학 그리고 민중 이데올로기가 범람하던 시절인 1986년 일단의 좌경 대

학생들이 건국대학교 본관을 점거하여 위의 ‘가극 피바다’ 끝구절을 새긴 현수막을 내걸고 장기간 폭력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조선일보 1986.10.30)

이 사건을 계기로 진달래꽃은 우리들 마음속의 향토적 이미지를 벗어나 이념적 덧칠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구에 회자된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을 잊은지 오래이고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은 건국대 점거 사건 자체를 알지도 못한다.

3면으로 이어집니다.

재원 없는 복지 공약 나라 망친다

흔히 안보와 경제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바퀴로 비유된다. 그러나 안보문제만 해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진통이라든가 국방개혁에 대한 18대 국회의 처리 무산 등에서 보듯 우려할 만한 측면이 적지 않다. 경제도 여야의 온도차는 있지만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 아래 남발하는 복지포퓰리즘 공약과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표방이 외화내빈으로만 보여 그중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 표방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캐치프레이즈로서는 그럴듯해 보여도 구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무모해 보인다. 그래서 장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 안정보다는 불안, 희망보다는 절망, 낙관보다는 비관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대 총선은 새누리당의 다수당 유지로 막을 내렸으나 정치권의 정책공방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을 예선에 비유한다면 연말 대선은 본선인 셈이다. 지금까지 여야의 경제분야 정책공약은 대기업 규제를 빼면 중소기업 중시, 중산·서민층을 의식한 세제개혁과 복지 강화 등에서 정도의 차만 있을 뿐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본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복지공약을 비롯, 재벌 때리기 등 표심을 자극하는 각종 경제정책을 지금까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후퇴, 완화된 내용을 들고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문제만 하더라도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양한 복지정책을 내놓는데, 문제는 재원 조달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등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에 있다. 대폭 확대된 각급 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이 없어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거나 급식내용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복지공약을 남발하지만 정작 그 예산을 확보, 집행해야 할 지자체에서는 재정난과 누적부채로 복지는커녕 파산직전에 긴축 살림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곳이 생겨나고 중앙정부도 빠른 속도의 부채증가로 재정

건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자체 재정난과 채무 누증의 심각성은 인천시가 지난 4월2일 소속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 20억여원을 체불한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0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빌려온 5200억여원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한데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상무
·세종대 석좌교수

전년 33.4%에서 34.0%로 높아졌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밑돌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 분야에 쓸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미 재정이 감

내외에 머물렀으나 그 후 급속히 증가했다. 앞으로 건강보험과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경직성 지출을 늘리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30년에 100%, 2050년에 168%까지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총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4월4일 “정치권의 266개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올해 복지예산 92조6천억원 외에도 향후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당국과 각 정당에서 제시한 복지관련 수치는 들쭉날쭉이다. 중요한 사실은 정치권의 복지공약 전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 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한데 이는 조세와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여야가 총선용으로 제시한 복지공약방안을 국회와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이 정권이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더구나 여야 정치권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공약준수를 다짐하고 나서 고장난 브레이크를 연상케 한다.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내거는 것도 문제지만 지키지 못할 공약을 강행하는 건 더욱 문제다. 세종시 추진을 정치적으로 약속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행케 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복지나 경제민주화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절실한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확충이다. 적어도 이와함께 가자는 주장이다. 재벌의 잘못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교각살우를 하지는 말자는 주장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종 특혜를 누리고 국민혈세를 축내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 견제하기는커녕 정파적 도그마에 휘둘리거나 한술 더 떠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망치고 나라를 거덜내려 하고 있다. 일례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 같은 건 무책임의 소산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제자리를 찾아 본래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국회]

학교 무상급식 일부 지자체서 '두손' 지키지 못할 약속은 무책임의 극치

이어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지자체 채무는 2008년 19조원에서 2009년 25조원(34%증가), 2010년 28조원(12%증가)을 넘어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져야하는 지방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63조원에 육박한다. 지자체 채무 급증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성을 무시하고 재정능력을 도외시킨 채 업적 위주의 과시적이고 선심성 낭비성 사업에 돈을 쏟아 부어 재정파탄을 불러온 요인이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불거지는 지자체 재정난과 채무상환 불능상태는 몇몇 군데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데 심각성을 더해 준다. 공공채무 급증현상은 비단 지자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420조7천억원(지방정부 채무 포함)으로 전년보다 28조5천억원 증가해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845만원의 나라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복지예산 확대의 문제점이 드러나는데도 ‘포퓰리즘’에 눈이 먼 정치권은 오불관연(吾不關焉)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여러나라의 재정파탄 사태나 과거 남미의 사례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작년 5월 현재 96%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국가재정 상태는 겉으로 보기에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국제 기준과 괴리되거나 실질적으로 국가채무이면서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고 부채증가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상황불능에 빠지면 대부분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공기업 부채의 경우 작년 현재 400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2개 공기업에 대상으로 산출한 공기업 부채는 368조원. 여기에 한은 집계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군소 공기업 244개의 부채를 포함하면 총 42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부채와 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범국가 부채는 849조원으로, GDP 대비 비중은 68.6%로 높아진다. 국가채무비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략 10%

2면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4·11 총선 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통합진보당으로 합당하면서 당의 이미지컬러를 진달래 색깔인 연분홍색으로 정했고 총선 과정에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서울 노원을 선거지원 유세를 하면서 노회찬, 김용민 두 후보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개나리꽃 (민주통합당 의미)과 진달래꽃 (통합진보당 의미)을 함께 들고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외쳤다. 진달래꽃이 다시 화두에 오른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연분홍색을 당 이미지

색깔로 정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수도 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중북 논란에 시달려온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 합당하면서 굳이 진달래꽃을 전면으로 내세운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가 하나 하나 드러나고 있다.

총선 전 서울 관악을 야당통합후보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이 바로 그 열쇠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4월19일자에 ‘경기동부연합’은 1991년 결성된 ‘민주 민족 통일 전국연합’의 지역조직으로 1980년대 후반 경기 성남과 용인에서 활동하던 좌

경 운동권 세력이 그 뿌리라고 보도했다. 여기서 ‘1980년대 후반’이란 1986년 10월 29일 건국대 본관 건물을 점거하여 ‘가극 피바다’의 끝구절을 현수막으로 내걸었던 좌경 폭력시위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뜻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은 바로 진달래꽃을 머리에 꽂고 해방춤을 추자던 건국대 점거사건 세력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한 중앙일보는 4월20일자에 통합진보당 전국구와 지역구 후보로 원내에 진출한 이석기,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등이 ‘경기동부연합’ 소속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전국구 2번 당선자 이석기는 국보법 위반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사실상 장악하여 지난 총선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과 불법을 동원, 원내 교두보 확보에 주력했다고 한다. 이쯤되면 통합진보당과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경기동부연합’과 진달래꽃의 비밀은 어느정도 그 베일이 벗겨진 셈이다. 진달래꽃 대신 금배지를 달게된 이들의 다음 행보와 함께 19대 국회의 장래가 걱정스럽다. [국회]

‘저질 양아치 정치’ 이젠 청산하자

시끄럽던 국회의원 선거도 끝나고, 북한 김정은이 1조원의 비용을 들여 강행한 ‘강성대국 과시 불꽃놀이’ 축제도 미사일의 공중폭발로 끝나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도 조용하고 편안할 수가 없다. 아! 이렇게도 조용한 세상이 다 있었던가 하고, 나는 모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있다. 그동안 남과 북에서 들려온 것은 그저 귀를 막고 싶은 소음뿐이었다.

나는 몇 년 전, 주제넘게도, ‘천박한 국민, 천박한 정치, 천박한 언론’이라는 좀 과격한 제목으로 한권의 단행본을 발간한 일이 있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이런 느낌을 매일 매일 거듭거듭 반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정치를 하려는 사람, 공부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도대체 ‘반값 등록금’을 왜 시행해야 하느냐, 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나도 한때 대학 교수를 했고, 대학 총장직에도 있어 보았으나,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려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금 우리의 대학교육은 시급히 개편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현상태로 놔 둔 채, 정부가 대학자원을 강화해주기만 한다면, 우리 교육을 크게 왜곡하는 결과가 된다.

빈부격차 확대를 이유로 ‘정권심판’을 떠들고 나왔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말해, 과거를 모두 부정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정권을 세우고,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빈부격차를 없애려면 ‘국민 모두가 평등하다’는 공산 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원래 ‘평등’과 ‘자유’는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다.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자유는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자유를 줄일 생각은 전혀 안하고



박헌태

·본회 회장
·전 국회의원
·전 KBS사장

정부가 민간인 동향파악 노력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국민의 동향파악은 국가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또 과거의 어느 정권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정권이 있었는가. 물론 사찰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기분 좋은 일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죄가 되려면, 경찰이 이런 사람을 잡아가야 죄가 되는 것이다. 경찰이 사실상 안 잡아가면 그 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고 만다. 우리에게 국가보안법이 없어서 종북 좌파 세력들이 판을 치느냐, 경찰이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못 본체 하기 때문에 국가 보안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어 있는 것이다.

또 한미FTA는 왜 폐기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주저없이 떠들어대는 것은 무슨 심사냐. 이것이 정치냐. 이런 말 하는 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정치인이나. 이런 말을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전파시키는 언론은 과연 옳은 언론이나. 이런 말을 듣고 박수치는 국민은 제 정신을 가진 국민이나. 모두가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미사일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은 김일성 생일 1백주년 기념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그들이 언론통제라는 수단으로 그들의 인민을 속일 수는 있더라도 우리 국민들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이 스스로 탄로 낸 일련의 사실들을 보고 북의 실상을 소상히 알게 되었다. 이러한 북의 거동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저런 헛짓을 왜 하고 있나, 하고 측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대북관 변화야말로 우리에게서 최대의 수확이고 그들에게는 최대의 손실이다.

국민이야, 인민이야, 죽든지 살든지 간에, 정권만 잡으면 된다 하는 저질 양아치 정치를 청산하자. 이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필자]

자유축소 없는 평등확대 안될 말 “정권만 잡으면 된다” 발상 버려야

있다. 자유는 자유대로 최대한으로 확대하면서 평등은 평등대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원히 달성될 수 없는 공리 공론이 되고 말 것이다. 과거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빈부격차가 없었던 나라가 있었던가. 나는 공산주의의 조국이라는 구 소련에도 그것이 있었던가를 묻고 싶다. 소련에서도 당원과 비 당원 간에는 철저한 빈부격차가 있었고, 심지어는 당에서도, 정부에서도, 아무도 일을 안 하는 ‘노멘클라투라’ (Nomenklatura)라는 특권계급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 운운하지만, 백주에 정체불명의 온갖 ‘도깨비’들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아니다. 그러나 자기가 범죄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한, 자기 모르게 사찰을 당하더라도 그리 불편할 것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전혀 이슈가 될 수 없는 얘기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가장 시급한 이슈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나는 이해 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을 큰 이슈라고 떠들어댄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정치한다는 사람들의 자질을 크게 의심케 하는 사례이며 ‘국격’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또 앞으로 불법사찰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된다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그 효과는 극히 의문이다. 어떤 정권도 불법사찰을 하겠다 하면서 하는 정권도 없으려니와, 설사 이런

황사, 이득도 있다

봄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황사는 중국 대륙으로부터 오는데, 중국 북부에는 약 25만 평방 마일에 달하는 넓은 황색의 황토대가 있으며 이곳의 주성분은 석영과 석회로 된 황토다. 이 황토는 칼슘, 칼륨, 인 등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고 매우 작아 지하수를 스며 올리는 힘을 갖고 있으며, 화북지방의 토양을 풍요롭게 하여 중국 5,000년의 농경 역사가 이 황토층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황사는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 황토 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하하는 현상이다. 보통 저기압 활동이 왕성한 3~5월에 많이 발생, 때로는 상공의 강한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태평양, 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간다. 황사 현상이 나타나면 태양은 빛이 가려져 심하면 황갈색으로 보이고, 흙먼지가 내려썰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달이 고비가 되겠으나 황사는 봄의 불청객으로 불리고 있는데 중국대륙의 사막화와 관련이 있다. 황하유역은 지금으로부터 2천 년전 까지는 50%가 삼림이었지만 지금은 5%도 안남았다는 것이다. 이 나무도 풀도 없는 이 땅에 비가오면 엄청난 토사가 씻겨내려가 황하하구에는 1년에 1킬로



이보길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해설위원

씩 땅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황하하구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4,500킬로밖에 안 떨어져 이제 4500년이 지나면 중국 엘 걸어가도 된다는 것이다..

현재 황사는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전부 부정적이다. 즉 우리 인체에 눈과 호흡기는 물론 피부병을 앓게하며 농작물 생육에도 해를 주고 각종 구

조물과 이동수송장비의 침식과 부식을 촉진하며 통신, 컴퓨터, 항공기 등 정밀기계의 성능에도 문제를 일으키며 대기도 오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사현상이 우리나라 기록에 최초로 나타난 것을 보면 서기 174년 신라 아달왕 때로 흙비가 왔다고 기록돼있고 조선왕조시대에도 기록이 많이 있다.

황사 역사가 이러하지만 황사가 해로운 것만은 아니란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황사 먼지는 바로 흙 자체여서 알루미늄, 철, 칼륨, 중금속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인체에 해로운 납성분 같은 중금속은 없다는 것. 이것이 표토를 채워주는 것은 물론 산성화된 토양에 알칼리성 흙을 덮어줘 생태계에 이점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내리는 황사의 양은 한번에 약 100만톤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

5면으로 이어집니다.

국가원수 비하 악순환 고리 끊자

국회의원 선거 다음 날 친구들과 정치판 이야기에 핏대를 올리다가 귀가하던 길이였다. 지하철역에서 이용하던 버스 대신에 택시를 탔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였다.

택시를 탔으면 그냥 행선지만 얘기하고 기다릴 일인데 화종구출(禍從口出)의 우(憂)를 범하고 말았다.

“투표 잘 하셨지요? 찍으신 후보, 당선 되셨나요?” 말을 건넌 것이 화근이었다. 기사 양반 대뜸 대통령 욕을 퍼붓는 것이었다.

“그 대통령 xxx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말인즉 자기가 여당 후보를 밀었고 여러 가지로 미루어 당연히 당선 돼야 했는데 대통령 때문에 떨어졌다며 온갖 욕을 퍼붓는 것이었다.

당황스럽고 민망했지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잖은가. 얼마 전 서울 시청 앞에서 “올빼미가 살면 쥐박이는 죽는다.”라는 글이 쓰인 풍선을 주워들고 지인들과 탄식했던 일도 떠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있던 날 TV에서 “이명박 xxx 복수 할거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봤고 공무원인 현직 판사가 대통령을 향해 “가카 빅엿”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일도 보지 않았던가.

그런 나라는 누가 뭐래도 잘못된 나라가 아닌가. 그가 판사를 그만 둔 뒤 정치판을 기웃거린 것을 보면서 한심했다. 그는 이 사회의 망나니이며 그런 사람을 조직원으로 껴안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법부도 창피해야 할 일이다.

‘이명박 xxx’란 낙내임을 쓰는 낙티즌도 있다고 하니 할 말이 없긴 하다.

비판과 욕설은 달라

국가 원수를 맘대로 욕하고 비하하면 그것 만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높은 사람과 맞짱을 뜨거나 대 놓고 욕을 하면 자신의 위상이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반열이라는 착각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국가 원수, 대통령을 이렇게 함부로 욕해도 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 일 수는 없는 것이 다.

국가원수의 비극은 바로 그 나라의

비극과 연계될 것이며 대통령이 모욕 받는 것은 그 나라, 그리고 그를 뽑은 국민이 모욕을 받는 일일 것이다.

대통령의 잘, 잘못은 임기가 끝난 후에 처벌 여부를 가리고 역사가 준 열히 심판할 일이다. 물론 대통령이 기 때문에 비판에 서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얘기는 아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
·전 KBS LA지국장
·수필가

대통령 잘, 잘못은 역사가 심판 막말 욕설은 국민 모독하는 일

니다.

여기서 지난 3월 한 일간지에 ‘대통령의 추락’이란 제목으로 실린 서울대 박지향 교수의 칼럼 일부를 옮겨 싣는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풍토는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되었다. ‘놈헌’ ‘노구리’ 같이 비하하는 표현이 난무하더니 요즘에는 ‘쥬xx’, ‘가카새끼’ 같은 적나라한 욕설로 까지 격화했다. 이 싸움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정부가 하는 일을 방해하여 ‘실패한 정권’이란 낙인을 찍음으로써 정권을 뺏는 것이다. 그들은 나라는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아니 반대편의 성공을 보느니 차라리 나라가 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막가과적 태도는 현 정부들여 더욱 심해졌다.〉

특히 정치인들에게 박 교수의 글대로 당신들이 “정말로 나라는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는다거나 반대편의 성공보다 나라 망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지를 묻는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국가원수를 마구 비난하고 비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고 촉구한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국가원수 모독죄의 부활도 검토할 수 있

을 것이다.

현행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자연인이나, 법인, 그리고 조직을 갖춘 단체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심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경우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인 아무개로 제소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가원수 모독을 대처할 법규가 없

다고 한다.

술 취한 서민의 녀두리 같은 것이야 웃어넘길 수 있겠지만 정치적 목적과 계산이 깔린 국가원수 모독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어찌됐건 현직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뽑은 나라의 얼굴이다. 그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은 국민에게 침을 뱉는 사람이며 나라의 권위를 해치는 사람인 것이다. 국가 원수 비하에 화가 나는 이유는 대통령을 위한다거나 아끼기 때문이 아니다. 정말로 나라가 걱정되고 미래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다음정권서도 또 생길 것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먼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의 불행은 과거에 잘못된 일들의 보복”이라는 말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내일의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잘못된 일들의 보복일 것이다.

정치 현실에서 우리는 술한 부메랑과 자가당착(自家撞着)의 덫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뿌린대로 거둔다고 한다.

오늘 국가원수를 모욕하는 행태를 놔두면 다음 정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또 그 다음에도...

국가원수에 대한 욕설과 막말은 사회 각 분야로 마구 잡이로 번지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막말과 욕

설이 나뉠굴면 사회와 나라가 어찌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교육이 어찌 바로 설 수 있으며 바른 질서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그 결과로 현실의 행복도 미래의 희망도 날려 버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칭찬하는 사회돼야

욕 없는 사회, 상대를 비하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출발점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기틀로 삼자고 외치고 싶다.

막말과 욕설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시궁창의 구더기 보다 더 더럽고 악귀보다도 더 나쁘다는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고 싶어진다. 가족이 대놓고 막 욕을 해대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깨진 가정일 것이며 지도자가 막 욕을 계속 먹어야 하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병들고 희망이 없는 사회일 것이다.

하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욕설과 패륜적 막말 파란을 일으키고 떨어진 사람이 잠깐 반성한다더니 국민 욕쟁이로 나서겠다고 했다. 막말과 욕을 무기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는 선언이다.

‘국민 욕쟁이인가?’ 아무데나 국민을 끌어다 붙이다니 울화가 치민다. 국민이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다.

막말과 욕설이 창궐하는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 욕으로 광을 내리는 사람들은 매도되어야 하고 욕을 앞세우는 세력은 매장되어야 한다.

욕설과 저주가 판을 치고 욕 잘하는 사람이 인기를 끄는 나라에 바람직한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

막말과 욕설, 비하는 저주이며 사회적 악귀이며 국가적 재앙이다. 욕설과 막말에 기대는 지도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드라큘라이며 뱀파이어들이다.

먼저 대통령의 권위부터 세워져야 한다. 상대방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칭찬하는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쌓는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일들은 욕 없는 사회에서 이뤄질 것이다. [국문]

4면에서 이어집니다.

런데 이 황사는 바다에 내릴 때는 적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황사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도 있다. 황사는 성층권, 그리고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이보다 낮은 대기권으로 이동해 황사가 대기오염 물질과 같이 온다는 것은 아니

란 연구 결과이다.

그러나 황사가 우리에게 이러한 이득도 있다고해서 조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서 호흡기 질환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가급적, 황사가 심할때는 여기 노출되지 않게 하고 노출됐을 때는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황사

의 미세한 먼지가 호흡기를 건조하게 하므로 물을 하루 8잔 이상 마시도록 하며 집안엔 되도록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 과일과 채소는 장운동을 촉진해 유해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며 미역과 다시마등 해조류에 있는 아르긴산도 유해물질을 체외로 내보내므로 섭취를 많이 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좋은 음식은 물(노폐물 배출), 돼

지고기(불포화지방산이 공해물질 중화), 마늘(유황성분이 중금속과 결합해 변으로 배출), 도라지(납,카드뮴,다이옥신 배출효과), 채소, 잡곡, 해조류(장운동 돕고 황사로 쌓인 체내 노폐물 배출), 미나리(혈압 낮춰주고 몸속 열 없애주며 구토, 변비 감증완화)등이다. [국문]

중북세력 척결 특단대책 마련 촉구

대한언론인회 6·25참전언론인회 정기 총회 성명

제2대회장에 박기병 본회이사 선임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회는 지난 4월 19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박기병 본회 이사(사진)를 제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박 회장은 1950년 8월 학도병으로 입대해 7사단 포병 16대대에 서 북한군과 싸운 언론인으로, 춘천 MBC와 강원민방 사장, 한국기자협회 10대, 17대 회장을 역임했다.



박기병 회장

이날 총회는 임원 선출에 이어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전적지 탐방, 대토론회, '내가 겪은 6·25 한국전쟁' (가제) 출판, 안보 캠페인(중고생 상대 순회강연)등을 결의하고 대북규탄 성명(아래 참조)도 발표했다.



대한언론인회 6·25참전언론인회 총회.

〈참전 언론인회 새 임원명단〉

- 고문**-임인흡(전 대한일보 사회부장)
임학수(전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겸 체육부장)
지갑중(한국참전국협회 회장)
- 명예회장**-이혜복(전 KBS 해설위원)
- 감사**-김관태(박물관 도슨트)
한영섭(전 KBS 보도실장)
- 부회장**-송두빈(전 내외경제 편집국장)
황대연(전 매일신문 편집위원)
- 이사**-공대식(전 MBC 해설위원)
김 집(전 KBS 전문위원)
이순기(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지용우(간사·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최서영(전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사장)
한영도(미 CBS서울지국장)
홍성혁(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대북규탄 성명서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여전히 그들의 대남 무력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을 가장한 로켓 발사와 대남비방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들은 창립 2주년에 즈음하여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로켓 발사 등 대남 무력도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첫째, 북한 공산정권은 휴전이후 간단없이 천인공노할 대남 무력도발을 자행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해왔다. 우리는 북한 공산정권의 이 같은 호전성과 적화통일 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이 다시는 이런 무력도발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긴밀한 한미군사동맹을 비롯한 대북억지전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해 주기 바란다.

셋째, 6·25 남침전쟁이 남긴 엄청난 희생이 모두 북한 공산집단의 오관과 만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일부 젊은 세대들의 왜곡 굴절된 안보 불감증과 중북 좌파 세력의 반국가적 행태는 정부당국의 이러한 대처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이를 총체적으로 극복하기위한 범국민적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2년 4월 19일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 일동

한국전 순직 종군기자 추도식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는 지난 4월 27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 통일공원내 종군기자 추념비 앞에서 한국전쟁 당시 전장을 누비며 기자의 소명을 다하다 순직한 종군기자를 위한 추도식을 거행했다.



대한언론인회, 유엔군사령부, 한국전종군기자 동우회, 유엔한국참전국협회 파주시 후원으로 거행된 이날 추도식에는 흥원기 대한언론인회장을 비롯, 윤익한 한기호 상담역, 송효빈 감사, 윤기병 정기정 부회장, 김영호 박기병 박실 이사, 박용운 오관룡 우경식 이성춘 이종기 지갑중 한영섭회우 등이 참석했다.

대한언론인회 서예 연구회 회원 모집

대한언론인회는 붓글씨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회원을 찾고 있습니다.

서예연구회원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예 삼매경에 심취하기를 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 참고하시어 5월 10일까지 대한언론인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개강예정 : 5월 15일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 장 소 : 대한언론인회 회의실
- 수 강 료 : 3개월 단위 10만원
- 수강인원 : 선착순 10명
- 서예강사 : 남덕 한석봉 선생(사진·대한민국서예대전 대상 수상, 한국문화예술협회 회장, 세계미술협회 서예부문 심사위원 역임, 현재 인사동에서 남덕 서예학원 운영)
- 연 락 처 : 02)732-4797/4798
※교재 беру 먹물 화선지 각자부담



본회 봄철 체력단련 갑니다

아래와 같이 봄철 체력단련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바랍니다.

- 일 시 : 5월 25일 오전 8시 30분 (서울도착 오후 6시 30분)
- 출발장소 : 프레스센터 앞
- 행 선 지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모듈자리 관광농원-서봉사(전화 033-436-6113)
- 참가신청 : 02)732-4797/4798 (5월 15일 09시 정각부선착순 80명)

“총선, 패자는 있어도 승자 없다”부각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고전 예상을 깨고 152석의 과반을 획득했다. 그러나 중앙지들은 새누리당의 승리 표현을 대개 유보했다. 여야가 8개월 뒤 대선을 향해 똑같은 출발선에 선 것으로 보았다. 여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했고 민심의 척도인 서울에서 48석 중 ‘강남벨트’ 위주로 16석에 그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득표율(43.3%)도 민주·통진당 연대(37.9%+6%)에 패배했다. 비례 득표율도 46%대 46.8%로 졌다. ‘무승부’ 비슷한 전초전이 과고를 예상케 한다. 18대 보수의석은 200석이 넘었다. 민주당 의석은 근 50%가 늘어났다.

문화일보는 ‘4·11민심의 명령 안보와 경제 불안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에서 “새누리당 의석수가 크게 줄었고 민주당의 의석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승패를 규정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보수행동가를 공천에서 배제했지만 유권자들이 ‘보수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여 충청도와 강원도에서 약진했다”며 ‘脫보수의 반성’을 촉구하고 공을 유권자에게 돌려줬다. 중앙일보는 ‘4·11 민심은 정치권에 대한 경고다’라는 사실에서 “선거를 이끈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고군분투로 평가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박근혜의 기적’으로만 받들어 모신다면 자기 과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다른 시각이었다.

‘민주당 미래 비전 제시’

민주당 비판은 좌파매체 쪽이 강력했다. 한겨레는 ‘민주당, 통렬한 반성 위에 전열 재정비하라’는 사실에서 “민주당은 상대의 실수에만 의존해서는 득점할 수 없다는 것,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과거 심판만 외쳐서는 민심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좌우 중립 사이에 있는 부동층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아일보도 ‘民心은 미래 위한 희망의 정치를 명령했다’는 사실에서 “민주당은 이념 대신 실용, 과거가 아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만 중산층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

다. 국민은 극단적인 이념투쟁에 신물이 났다. 민주·통진당 연대가 국민의 이런 뜻을 외면한 채 정파적 이익에만 골몰하는 구태를 연출한다면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썼다. 모두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문했다. 한국일보도 “진보정당보다 더 좌파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중도지지자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적했다. 동아일보는 ‘朴 위원장, 이제부터 현재 권력으로 심판 받는다’는 사실에서 “대선에서 사표도 살아나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긴장을 잃으면 실패를 예약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부패 제도를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모든

실정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이 정도의 성적을 낸 것은 전통적 텃밭을 온전히 지키며 선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통적 텃밭의 의석수와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선거구도는 대선 과정에서도 박 위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 지도 앞에서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다. 지역구도를 온존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임을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고 썼다. 지역구도는 영남보다 호남이 더 강했다. 영남은 문재인 조경태 민홍철 등 야당 3명을 당선시켰다. 호남의 여당은 이정현 의원조차 통진당에게 고전해 1석도 못 건졌다. 야권이 득표율에서 이긴 것은 당이 지역구도에 따른 집토끼를 확신하고 정세균 정동영 정균환 등 저명 중진들을 서울로 보내 바람을 일으키며 善戰한 덕도 클 것이다.

안보 위협 ‘불꽃놀이’ 희화화 곤란

4월13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일부지는 센세이셔널한 제목으로 사태를 희화화했다. 수천 킬로미터 사정거리의 미사일이 옆구리로 날아오는데 ‘불꽃놀이’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 진지함이 필요했다. 통진당은 중국도 대북 규탄에 동참했음에도 “제재 일변도 방식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변했다. 동아일보는 18일 사실 ‘통합진보당, 북한의 지침 따르는지 밝혀라’에서 “19대 국회 개원 전에 통진당은 북한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국민의 불안을 덜 수 있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로켓 발사 북한을 감싸는 통합진보당’ 사실에서 “우리는 13석 책임에 걸맞게 중북과 폭력이라는 두 가지 명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문해 왔지만 당은 변화 가능성을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진보 연대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결집시키는 역풍을 몰고 왔고, 안보 의식이 높은 강원도에선 9석을 새누리당이 싹쓸이하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쓰면서 총선 패배의 진짜 원인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E]

새누리당 득표율 野 연대에 뒤져 “4·11민심은 정치권에 대한 경고”

들의 이탈을 초래한 것은 중대한 판단착오다. 도지사가 나온 충북과 강원도에서 패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준비 안 된 세력에게 정권을 맡기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문화일보는 “책임정당의 신뢰 상실을 자초했고 중북세력과의 협력 등 안보를 불안케 하고 국격을 훼손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통타했다. 한겨레는 야권 패인의 하나인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해군기지 말바꾸기 논란을 ‘정책혼선’이라고만 할뿐 야권이 어떤 태도를 취했어야 하는지 요구하지 않았다. 일부 보수지들이 중북성과 안보 불안을 지적한 것과는 다른 어정쩡한 시각이었다.

‘새누리는 대세론 안주 말라’

신문들은 새누리당에게 외연을 넓히고 포용력을 발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국회운영에 대한 우려는 박 위원장이 보여 온 권위주의적이고 비타협적인 정치스타일과 맞물려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고 지

국민이 박근혜를 주시한다’는 사실에서 “대선이 있을 연말까지 국정운영의 책임이 박 위원장의 어깨에 놓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벌써부터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는 주변을 경계해야 한다. 박근혜의 힘은 이제 마지막 시험에 들었다”고 썼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새누리당 이삼돈 비대위원은 17일 사실상 4·11총선이 경선을 갈음한 것이라며 황당한 박근혜 대선후보 추대론을 주장했다. 총득표로 야권에 졌는데 민주 절차를 무시하고 왜 추대한다는 건지 모를 아부근성이다. 그럼 야권연대로 득표율에서 이긴 민주당 한명숙 대표와 박선숙 총장은 왜 사퇴했다.

문화일보는 ‘의석 과반 새누리당 투표서 밀린 의미 제대로 읽어야’란 사실로 “12월 재집권에 성공하려면 보수결집과 외연확장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당 체제 개편에서 아름다운 경선 구도를 만들어내고 유능한 인재, 세력을 ‘보수의 기지’아래 결집시켜야 한다고 썼다.

이번 총선이 보여준 강고한 지역구도에 대해 한겨레는 “이명박 정권의

김성환 회우 ‘고바우’ 만화 반세기 日本 11개 지방신문에 대거 보도

“고바우 만화, 선량한 시민의 눈으로 풍자, 저항과 수난의 반세기, 독재와 싸워온 네 컷 만화, 민주와 실현을 계기로 연재 종료, 한국현대사 저항의 기록”이란 다채로운 제목으로 김성환 회우의 인터뷰 기사를 최근 일본의 ‘데일리 동북(東北)’을 비롯한 11개 지방신문이 일제히 보도, 식지 않는 고바우 영감의 명성이 일본에서 더욱 빛을 내는 모습을 나타냈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의 히

라이 히사시(平井久志)편집위원이 지난 2월 방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김 회우 자택을 직접 방문해 인터뷰한 기사를 공급받아 게재한 것이다. 기사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고바우 영감을 모르는 이는 없다. 1950년 11월 초에 등장해서 동아, 조선, 문화일보에서 1만4천1백39회를 마지막으로 끝을 낸 고바우의 반세기는 한국 현대사의 기록이기도 하다.



日신문에 보도된 김성환 회우 인터뷰.

선량한 시민 고바우는 열심히 현장을 찾아 다니며 “이건 대체 뭘이요”라고 한 마디 한다. 그는 1932년 개성 태생. 한국전쟁 때엔 많은 만화가들이 공산군

에 협조했으나 그는 가담하질 않았다. 이승만 정권 때엔 ‘경무대 분노통’만화로 권력을 풍자했고 수많은 휴재(休載)를 당했다. 박정희 정권 때엔 검열관들이 만화 속의 개를 보고도 자신들을 비유한 것이라며 게재하지 못하게 했고 정보부에 잡아 가기도 했지만 고문하지는 못했다. 외국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걸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시대엔 “이민을 가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2000년에 ‘고바우 탄생50주년 기념 우표’도 나왔다. 그는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 되자 만화를 끝맺었다. 독재가 계속됐으면 의무적으로도 계속 그렸을지 모른다. [E]

회우들이 펴낸 新刊

정진석 명예 회우 ‘두 언론 대통령...’

본회 명예 회우 정진석 교수(외국어대 명예교수)는 최근 ‘두 언론 대통령 이승만과 박은식’을 펴냈다. 이승만과 박은식에 관해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 책은 주로 두 사람이 언론을 통해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발자취를 간결하게 요약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승만과 박은식은 한말에 언론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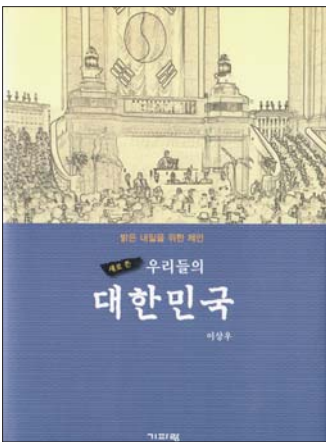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신문이 처음 발간되던 초창기에 이승만 박은식을 비롯한 언론 선구자들이 세운 전통이 있었고 일제 강점기와 광복 이후의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는 동안에 이를 올바르게 계승하였기 때문이었다.

시대가 바뀌고 언론 환경은 달라졌지만 이 책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고 독립과 개화를 실현하려 언론활동을 벌였던 선구자들의 정신을 일깨워 주고 있어 누구나 한번쯤 읽어 볼 만한 책이다. [국문]

이상우 회우 ‘우리들의 대한민국’

이상우 회우(전 한국일보·조선일보기자·전 한림대총장)가 5년 전에 출간했던 ‘우리들의 대한민국’ 개정신판 (기과광·224쪽)을 출간했다.

저자는 “5년 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어 그동안 상식이라 여겨 논의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이, 그리고 건국 과정이 온 사회를 갈라놓는 쟁점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쟁점이 된 건국과정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대하여 보완하고 통일문제도 다시 손보고 하여 새로 개정판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초판을 낼 때는 ‘우리들의 대한민국’ ‘우리가 바라는 통일’ ‘우리가 살아갈 21세기’라는 별도의 책으로 출간했으나 이번에는 세 책에 담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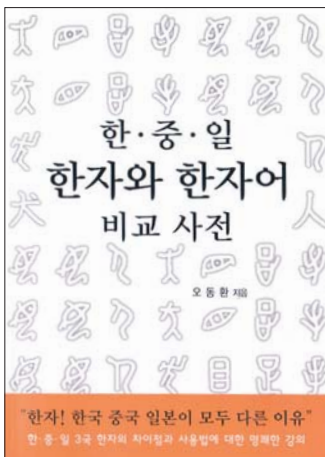
던 내용을 모두 한권에 담아 ‘개정신판’이라기보다 전부를 다시 쓴 새 책으로 탄생했다.

이 책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서장(序章)으로 하여 ‘대한민국 건국과 도전 극복의 역사’를 비롯 ‘내일의 대한민국’까지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고등학생과 대학 초년생을 염두에 두

고 되도록 쉽게 이야기 하듯 풀어써 책을 썼으며 욕심 같아서는 우리 젊은 이들이 모두 이 책을 읽어 주었으면 좋겠다”며 “이 책을 읽고 대한민국이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하는지를 깨달아 주었으면 고맙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문]

오동환 회우 ‘한·중·일 한자와 한자어...’

오동환 회우(전 경향신문 논설위원)가 ‘한 중 일 한자와 한자어 비교사전’을 펴냈다. 이 책은 ‘한 중 일 3국의 한자와 한자어가 어떻게 서로 다르고 우리의 한자는 우리만이 쓰고 있는 오직 우리만의 한자라는 것을 확실하고도 상세히 알림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책은 또한 한



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연유로도 3국의 공통문자인 한자는 절대 버릴 수 없고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자를 쓰면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고 말할 수 없이 즐겁고 행복해 진다는 점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이 밖에도 중국 한자 단어의 뜻은 어떻게 다르며 일본어 한자 어휘의 뜻

과 우리 한자어와 다른 점을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기술한것이 특징이다. [국문] (도서출판 세시·327쪽·값 18,000원)

민병문 회우 ‘새벽에 만난 달’

평생을 쌓아온 우정이 색다른 시화집으로 결실을 맺었다. 최근 출간된 시화집 ‘새벽에 만난 달’ (온북스)은 민병문 회우(73·헤럴드경제 고문)의 시와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전 두산그룹회장)의 사진으로 꾸며졌다. 언론인은 시를 쓰고, 기업인은 사진을 찍은 것이다.

동아일보를 거쳐 헤럴드경제 주필로 반세기 가까이 현역 언론인으로 활동해 온 ‘평생글쟁이’로서 시인이기도 한 민 회우는 이번에 두 번째 시집을 냈다. 1959년 서울대 상대에 나란히 입학해 50년 넘게 우정을 쌓아온 두 사람은 시와 사진을 통해 노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풍경을 담았다. 이번 공동작업은 민 고문이 상당한 사진 실력을 지닌 박 회장에게 제안해 이뤄졌다. 시화집은 민 회우의 퇴임을 앞둔 마음, 수술 등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를 보여준다. 내면에 살아 숨쉬는 청춘의 패기도 곁들이고 있다.

“슬퍼말라, 겨울 인생들아, 그대들 화려한 젊은 날에/ 많이 오만하지 않



았던가./이제 얽은 추억을 남긴 채/ 소멸의 서러움에 젖어도/ 이미 겪은 무수한 풍상이/ 보석이 되어 위로한다.”(‘위로’)

무엇보다 이번 시집에도 시인의 시세계를 이루는 또 한 축인 언론인으로서 다져진 현실을 바라보는 날카로움이 녹아있다.

“변호사, 시민운동가, 언론인 등/ 벼슬길에 줄 선 어릿광대들/ 한 세월 잘 살자고 아등바등/ 뻔한 죄 지어놓고도 아닌 양/ 저마다 발뻘이 천리를 간다.”(‘무죄 선언’)

자연과 사물이 지닌 진면목을 보여 주려는 60편에 이르는 사진작품들을 보는 즐거움이 크다. 관습처럼 굳어진 노년의 세계가 새로워지는 느낌이다. 시집 발문에서 박 회장은 민 고문에 대해 ‘원래 문학청년 출신’이라며 “상과대학을 가는 바람에 인생 항로가 달라졌지만 결국 고회를 넘겨 원래 영역으로 돌아온 셈”이라고 썼다. 민 고문은 “긴 세월 신문사 밥을 먹고 마침내 자유인 신분으로 뒤늦게 문학에 본격 참여하는 순간을 자축하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국문]

황원갑 회우 소설 ‘불패...’

황원갑 회우(전 서울경제 사회문화부기자·소설가)가 이순신 장군 탄생 467주년을 앞둔 시기에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는 전기소설 ‘불패- 이순신의 전쟁’ (도서출판 마음)을 출간했다.

철저한 사료 고증, 정확한 문장 구사, 박진감 넘치는 문체로 다수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중견소설가이며 역사연구가인 저자 황원갑 회우는 이 책을 통해 이순신의 고행과도 같았던 54년간의 비상했던 일생, 탁월했던 위기 극복의 지혜와 출중했던 리더십을 재조명했다.

전쟁에 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전략 전술로 백전백승한 불세출의 명장 이순신, 그는 마지막 싸움인 노량해전에서 고귀한 한복숨을 바칠 때까지 조국에 대해서 지극한 충성심으로 헌신했고, 가정에서는 극진한 효성과 자애를 다했으며, 부하들을 너그러운 포용력으로 감싸주고 창의력을 길러주는 등 참다운 삶의 길을 제시해 준 겨레의 큰 스승이었다. 이순신은 단순히 명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열세를



우세로, 수세를 공세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탁월한 지도자였다. 소설은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서 시작한다. 해전을 승리로 마무리 지을 무렵 적탄에 맞은 이순신이 상선(대장선) 지휘소 갑판에 쓰러져 눈을 감기까지 자신이 지나온 54년간의 고행 같은 일생을 되돌아보는 형식

의 1인칭 독백체 소설이다. 작가는 또 이 소설 후기를 통해 근래 불거지고 있는 이순신의 자살설과 은둔설,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원균을 재조명한다는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는 이순신에 대한 인격적 비하와 전공의 평가절하 등에 관해 철저한 사료 분석과 고증을 통해 왜도난마식의 통렬한 반격을 가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왜적보다 아군 장수들을 더 많이 제거했던 ‘염기적인 국왕’ 이균(선조)이 무슨 이유로 이순신을 극도로 증오하여 기어코 죽여 없애려고 했는지, 또 원균 명장론의 허구 등을 극명하게 분석했다. [국문]

www.khnp.co.kr



원자력발전소 체험관을 다녀와서 -
사랑샘유치원 고은샘 작품

“아빠! 원자력이 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친환경 에너지래요!”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로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안전에너지, 원자력

- ① 30년 운용 노하우 - 1978년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준공 이후, 30여 년간 무사고 운영
- ② 빈틈없는 완벽설계 - 다섯겹 방호벽으로 방사선 완벽 차단 /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대처
- ③ 유능한 전문 인력 - 원자력 전문교육기관에서 정기교육 실시 / 시뮬레이션을 통한 상황훈련

“한번 기자는 영원한 기자 … 破邪歸正”

회우초대석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46〉

인터뷰 : 글 오인환

언론인으로 ‘외길 인생’ 57년을 살아온 전 ‘코리아 타임스’ 사장 겸 한국일보 고문 정태연씨(80·鄭泰演)를 만나보았다. 대답은 후배 언론인이자 소설가 생활 50년을 넘은 오인문씨(70·吳仁文). 총선이 치러진 이튿날인 12일 낮 12시 정각, 프레스센터 19층 한국기자클럽에서 이 대담이 이뤄졌다.

한국일보 견습기자로

팔순의 정태연씨는 지팡이에 의지하고는 있었지만 165cm의 키에 67kg의 체중으로 비교적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독서와 여행, 음악 감상의 취미 생활로 삶의 균형을 잘 잡아온 것 같았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연 고문께서는 한국일보 견습 3기(1955년)로 출발하여 주일 특파원, 영자(英字) 신문인 ‘코리아타임스’ 사장을 거쳐 한국일보 고문 등 오로지 언론인으로 ‘외길 인생’ 57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견습기자 시절부터 얘기를 풀어갈까요?

“중앙대 법대 졸업을 앞두고 고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장기영씨, 김활란씨의 여행기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직 어수선했을 때 1955년 11월 한국일보 견습기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때 면접은 오종식 주필(당시)이 했는데, 웬 사람이 와이셔츠 차림으로 왔다가다 하며 실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장기영 사주였지. 7백명 응시생 중 최종 5명이 뽑혔는데 그제서야 나는 사법고시나, 언론인이냐, 둘 중에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느냐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만약 떨어지거나 신문기자의 길을 포기했다면 ‘법조계의 큰 별’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때가 운명의 갈림길이었던 셈이군요. 후회는 안되십니까?

“언론인이 더 적성에 맞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신문기자 체험 중 기억에 남는 일은?

“1959년에 태국 방콕 ECAFE 본부에 특파되어 한·일 민간항공기 비행관할 구역 설정을 위한 ICAO회의 취재 보도, 금문 마조도 해협 긴장상태 특파 보도, 그 이듬해 3개월간 라오스 공레 반란으로 인한 내전을 중군 취재했죠. 그 뒤 61년도엔 미국 중남미 등 14개국과 유럽 아프리카 26개국을 순방하며 특별 취재를 했어요, 전현직 국가 수반을 단독 회견한 것도 일본의 이케다 수상, 브라질의 파도로스 대통령 등 여러 명이었죠.”

-62년도엔 올림픽 예선 원정 축구단 취재를 하는 길에 최초로 공산권 국가에도 특파됐었죠? 이스라엘, 터키, 버마, 태국 등과의 친선축구 경기 보도를 했었구요. 그 이듬해인 63년도부터 65년도까지는 축구가 아니라 취재를 위한 각국 특파원으로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버마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를 두루 돌았구요.

IOC위원 특별보좌관

“예. 장기영 IOC 위원회의 특별 보좌관으로 76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그레노블, 멕시코, 로잔 등 그밖에도 여러 곳

을 돌며 총회에 참석했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88년 서울올림픽때는 대회 공식 신문 제작 총책임을 맡아 영어 프랑스어 판 신문을 매일 64면씩 34일간 발행하여 역대 올림픽 공식신문 중 가장 우수하다는 IOC 공식 평가도 받았습니다.”

-세계를 가장 많이 돌아본 언론인이 국제적 감각으로 만든 신문이 어려웠겠습니까. 국제언론인협회(IOC) 한국 대표로 마드리드, 카이로 등 8개 총회에도 참석하였었죠? 95년 5월엔 미국, 1996 애틀랜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IOC 보도분과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었구요. 개인적으로는 56년 사회부 기자로 출발, 63년 사회부 차장, 64년 8월 기사심사부 부장을 거쳐 65년 2월 주월 특파원이 되셨는데 그때 얘기도 좀 해주시죠.

“베트남 중군기자를 두 차례 했어요. 처음 주월 특파원으로 갔을 때 ‘기자는 위험한 현장에서도 발로 뛰어 취재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 혼자 특별 사정을 하여 귀нес서 15km쯤 떨어진 곳으로 전투병과 함께 들어갔죠. 그때 베트남에 게 포위를 당해 미군 대위 1명이 전사하는 현장에 있었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별것 아니구나, 실감하게 됐죠. 부상병을 후송하는 헬리콥터에 간신히 올라타 사지를 탈출했는데, 이것을 안 장기영 사주가 ‘앞으로 절대 그런 모험 하지 말라’고 전문을 보내왔었어요.”

-65년 8월 외신부장이 되고, 68년 4월 편집부국장겸 주일(駐日)특파원이 되셨는데, 그때 기억나는 일은 뭐 없습니까?

“주일 특파원으로 만 4년을 근무했는데 임삼, 이원흥, 내 뒤에 조두흠이 좀 오래 했죠. 그때 일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겠고, 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오인문씨 얘기 좀 들읍시다. 사실(事實)에 기반을 둔 신문사에 허구(虛構)를 생명으로 하는 소설가가 입사해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네, 당시는 요즘과 달라서 1년에 전국의 소설가래야 10명 안팎 배출되는 때였는데 61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어느 새 반세기가 지났군요. ‘주간한국’이 창간되던 해인 1964년 한국일보사에 입사하여 ‘주간여성’ 부장을 끝으로 1988년에 그만두었습니다. 퇴직후에도 대학 등에서 겸임교수로 신문 편집론, 문예창작 등을 강의하며



“한번 기자는 영원한 기자”라고 강조하는 정태연 회우.

60년대 동남아 · 중남미등 순방취재 … 공산이승만 전 대통령 마지막 인터뷰 … “언론인

보내왔습니다. 그 동안 ‘한국문학상’ ‘예총 예술문화대상’ 등을 받았고, 문단 감투도 더러 썼지만 이제는 후배들에게 물려준 상태입니다. 사실에 근거를 둔 저널리즘과 허구(虛構)를 본질로 하는 소설, 이 두 가지 길은 전혀 이질적인 것 같지만 둘 다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고문께서도 재클린 수잔의 최고 베스트 셀러 소설로 기네스 북에도 등재된 ‘인형의 계곡’을 번역 출판하신 적도 있으니 번역문학가로 진작 등단하신 셈 아닙니까?(웃음)

“저널리스트는 속성상 문학만이 아니라 꾸준히 다른 분야를 이해하고 포섭하고 융합해내야 하는 숙명같은 걸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역기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언론인회 회원 중엔 현직을 떠난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해병대의 유행어처럼 ‘한번 기자는 영원한 기자다’라는 지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도 비록 현직을 떠났지만 공공(公共)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의 기자정신이 몸에 배어 ‘문단의 정의파’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원칙과 순리에 어긋난 범법행위는 용서 못하고 끝끝내 진실을 밝혀 소위 ‘정관(定款)파동’ 등을 바로잡아 놓았습니다. 저널리스트를 거쳐 정계나 관계, 경영

계로 진출한 분들도 적지 않은데 그분들이 이런 기자정신을 계속 유지한다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한번 저널리스트는 영원한 저널리스트다’라는 말은 우리 언론인회에서부터 퍼져나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학생위원장 인터뷰 성공

-정고문님 개인 얘기로 돌아가서 기자 시절 잊을 수 없는 사건이나 비화같은 게 있으시다면 공개해 주시죠.

“뭐 비화랄 건 없고… 내가 사회부에 재직하던 무렵인데 공항 담당 기자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난도 그 무렵 만들었습니다. 4·19 후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 체류중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은둔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를 ‘마지막 인터뷰한 기자’가 정고문이였음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미국 유학생으로 위장해서 “경의(敬意)를 표하고 싶다”고 사정하여 하와이 해변의 미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박사를 간신히 면회허락을 받았다.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 이박사는 망연히 태평양 바다를 내다보고 있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접시를 닦고 있었다. 유학생이 아니라 한국일보 기자임을 영어로 밝히

破邪顯正 변함없어요

鄭泰演

- 전 한국일보 편집인 겸 편집이사
- 전 코리아타임스 사장
- 전 한국일보 상임고문

2인문(본회회우·소설가) 사진 정운중(본회 상임이사)

자 이박사는 대뜸 한국말로 “한국사정이 어떤가?”고 물었다. 그때 한창 보릿고개로 식량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자 한숨을 길게 내쉬던 이박사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다. 이박사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자 프란체스카 여사가 갑자기 이박사의 뺨을 때렸다. 중풍으로 입이 옆으로 돌아간 걸 그렇게 해서나마 임시로 바로잡으려는 것이었다. 모국의 신문에 ‘이박사의 정상적인 모습’이 보도되게 하려는 노력이 애처롭게 느껴졌다.

“그렇게 특종한 기사를 당시 노스웨

대학원을 수료했다. 자녀는 1남1녀에 손자가 4명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노부부가 단출하게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모교인 중앙대에서 ‘자랑스런 중앙인상’으로 뽑혀 상도 받았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저널리즘의 가치를 논할 때 미디어 경영자, 기자의 자질, 소유와 경영 부문의 문제와 함께 ‘저널리즘의 철학’이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좋은 기사는 시민을 현명하게 만들고, 나쁜 기사는 오도한다”는 말을 염두에 두고, 저널리즘 종사자들이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그는 그의 이름자 발음 그대로 ‘태연’히 대답했다.

“저널리스트의 철학?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시대에 따라 가치관이 변화해야 하고, 이 ‘변화’와 ‘발전’의 방향이 제



장강재 한국일보 회장은 1991년말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초청으로 스위스 로잔을 방문, IOC본부에서 사마란치 위원장을 만나 다정하게 기념촬영을 했다. 좌로부터 김운용 IOC위원, 사마란치 위원장, 장강재 회장, 정태연 회우

나노·산권에도 특파돼 활약

본인은 시대변화 읽어야

스트 항공기 화물담당자 편에 특별히 부탁하여 보내자 그 기사를 본 장사주는 덩실덩실 춤까지 쳤다고 들었어요. 또 그 뒤 K.T. 사장 때였는데 전주 예수병원 원장을 만났더니 ‘이틀 전 기사가 실린 걸 신문이라고 내려보내느냐며 항의를 해요. 그 당시는 영자신문인 K.T. 기자들은 오후에 출근해서 석간신문 보고 기사를 영역하다시피 했던 시절이죠. 그 얘길 장사주에게 해서 당시 한국일보처럼 K.T.도 지방판 시내판 하루에 두 번 발행을 했어요. 근무시간이 앞당겨지니까 기자들은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경영 측면에선 개선할 요소가 발견되면 과감히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랑스런 중앙대인’ 뽑혀

그의 좌우명은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생각을 깨뜨리고 바른 도리를 드러내자는 의미다. 그 말을 할 때는 외유내강(外柔內剛)인 그의 기질이 그대로 느껴졌다.충북 제천시 당시 면서기를 하며 “인근에서 글 잘 쓰고 인정 후하기로 소문났던” 정인택(鄭仁澤)씨와 권희숙(權喜淑)씨 내외의 4남 중 장남으로 그는 태어났다. 그리고 6살 때 전가족이 서울로 이사, 용산고와 중앙대를 거쳐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신문

대로 잡혔는가부터 볼 줄 아는 안목부터 갖춰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지난 3백년간 이 지구촌을 주도해온 세력이 숨가쁘게 변화하는 시대예요.”

이런 때 우리 사회는 인터넷, SNS, 등 새로운 매스 미디어 환경의 등장으로 요동치고 있다. 컴퓨터와 ‘나노’산업 등의 영향으로 십수년 안에 현재의 인류 수준을 능가하는 ‘신(新)인간’까지 등장하리라고 예언하는 과학자도 있다. 이런 때 저널리스트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대중적인 분노’의 문제 등으로 시련을 치르고 있어요. 본능에 가까운 감성의 표출 등 말입니다.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한 이성과 판단력으로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소신을 지닌 저널리스트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인터넷이나 SNS는 종이신문이나 공중파 방송보다 대중을 즉흥적 감각적으로 몰아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바른 비판의식은 사라지고 말아요. 대중이 이런 위협에 빠져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문제도 숙제입니다.”

미디어 매체도 진화(進化)한다. 그 진화의 끝은 어디가 될까.

대답은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사정상 여기서 작별을 고해야 했다.

-오랜 시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수필■

北松亭

내 고향 Y읍에서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오리즘 떨어진 나지막한 야산에 북송정(北松亭)이란 데가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자란 우람한 소나무들이 뻗뻗이 들어찬 숲이었다. 읍내 사람들은 그 울창한 송림 지대를 흔히 북송정이라고 불렀는데 정작 정자(亭子)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마 예전에 강을 낀 솔숲의 정취를 자랑하던 정각(亭閣)이 서 있었는데 오랜 풍상(風霜)에 시달려 사라지고 북송정이란 이름만 그 숲의 대명사로 남은 것 같다.

나의 유년 시절 해마다 단오 날이면 그 솔숲에서 단오잔치가 벌어졌다. 읍내 사람들이 몰려와 들놀이를 하고 그네 대회를 열었다. 한창 꽃다운 처녀이던 고모의 손에 이끌려서 북송정의 단오잔치를 구경하러 가던 기억이 아련하다. 북송정 숲에서 고모가 사주었던 수리취떡의 향긋한 맛이 그리울 때가 있다. 이제는 추억만 아련할 뿐 그 우람하고 아름답던 소나무 숲은 사라져 버린 지 오래이다. 6·25전쟁 때 북쪽 인민군의 벌목으로 사라져 버렸다.

인민군은 Y읍 남쪽 8km 지점 강어귀에 놓인 끊어진 다리를 복구하는데 쓰려고 북송정의 그 울창하던 소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냈다.

인민군 공병대는 낮에는 유엔군 전투기들을 피해 숨어 있다가 어둠이 깔리면 북송정 소나무를 베어서 소달구지와 짐차로 실어 날랐다. 주민들은 밤마다 불려나가서 벌목을 돕는가 하면 무너진 차도를 복구하고 흙과 자갈을 까는 부역에 시달렸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던 내 또래 어린이들에게도 삼이나 팽이, 삼태기 같은 걸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거들게 했다. 나도 여러 차례 이웃마을 앞까지 가서 통나무를 실은 소달구지와 화물차들이 어지럽게 오가는 어두운 길에서 밤늦게까지 흙과 자갈을 퍼 나르는 일을 했다. 전쟁이 터지고 우리가 사는 곳이 국군과 인민군 사이에 밀고 밀리는 싸움터가 되자 우리 가족과 이웃들은 남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그러나 한 달 남짓 지나 북쪽 군대가 우리의 피난길을 앞질러서 포항을 점령하는 바람에 우리는 고향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피난 갔던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온 어느 날 저녁, 인민군 선전대가 사람들을 동네에서 제일 큰 집 마당에 모두 모이게 하고 군중대회를 열었다.

평양의 김일성대학을 나왔다고 소개된 잘 생긴 젊은 장교가 열변을 토했다. 영웅적인 조선 인민군대가 곧 남조선 국방군과 미(美)제국주의 군대를 무찌르고 조국을 공산주의



한영탁

- 본회 논설위원
-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 바른사회 시민회의 고문

자주국가로 통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 틈에 끼어있던 나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많았다. 하지만 인민군 장교의 불꽃 튀는 웅변을 듣고 있으면 무언가 알 수 없는 전율하는 힘과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아 가슴이 마구 뼉뼉였다.

며칠 뒤 선전대는 내 또래 아이들을 동사무소에 모아놓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북쪽의 국가(國歌)라는 것도 배웠다. 웬지 다 신이 나고 힘이 솟는 노래였다. 물감으로 북쪽 인민공화국의 국기를 그리고 김일성 장군과 인민군을 찬양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사무소와 여기저기 담벽에 붙이게도 했다. 합창단을 조직해 주면서 곧 다른 ‘해방지구’로 가서 공연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소년단원으로 편성하여 두 군데의 마을 공동우물 옆에 움막을 짓고 조별로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게 시켰다. 남조선 스파이들이 몰래 우물에 독약을 푸는 것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부모님들은 질겁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이미 선전대의 선동에 흠뻑 빠진 우리 꼬마 ‘혁명전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는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하고 목청껏 노래 부르면서 알 수 없는 흥분에 들떠 거들먹거리며 골목을 누비고 다녔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영락없이 마오쩌둥(毛澤東)의 홍위병(紅衛兵) 꼴이었다.

요즘 제주도 어느 해변 마을의 해군기지 건설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극렬 시위를 보면 어쩐지 60년이 더 된 예전의 일이 겹쳐 떠오른다. 데모에 앞장선 사람들은 수년 전, 훈련 중인 미군 탱크에 치어 죽은 소녀를 추도하는 촛불시위와 팽택의 미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에 나섰던 그 얼굴들이다.

나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마디로 반체제와 반미(反美), 종북(從北)에 귀착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소수의 반체제 세력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 통계학적인 사실이다. 그들 소수의 지상(地上) 무기는 잘 통제되는 조직(組織)과 순박한 다수 대중을 광기(狂氣)의 열풍 속으로 몰아가는 도그마적인 선동이다.

어린 시절 잠시 나를 들뜨게 한 인민군 정치장교의 열변처럼 불을 토하는 듯한 그런 선동의 광풍이 인터넷을 타고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대가 아닌가.

미국의 저명한 자연요법 권위자(의사)인 앤드루 웨일(Andrew Weil)은 그의 저서인 『자연건강 자연의약(NATURAL HEALTH, NATURAL MEDICINE)』 제12장을 ‘면역계를 지키는 방법’으로 할애하고 있다.

면역계의 기본적인 임무는 자기와 비자기를 가늠해서 이형(異型)세포나 파손(破損)세포를 포함한 몸속에 있어서는 안되는 ‘이물(비자기)’을 인식하고 그것을 배제하는 활동을 하는 일이다. 이를테면 병원균이나 그것에 침식된 세포를 찾아 내어 죽이거나 암세포를 찾아내어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몸에 대해 이물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경우에 면역계가 체크하는 지표(指標)는 단백질의 성분이다. 생체를 이루는 분자 가운데 가장 특징적이며 특이적인 요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면역계는 신경계와 마찬가지로 학습능력이 있다. 경험을 분석하고 기억하여 다음 세대(세포는 주기적으로 죽고, 다시 태어난다.)의 세포에게 그것을 전달한다.

면역계의 조직은 대단히 활발해서 정보처리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세포 분열의 스피드가 빠르다. 따라서 갖가지 타입의 에너지나 DNA를 변이(變異)시키는 자극에 의해 쉽사리 다치게 된다. 그러므로 암이 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장하는 주의(注意)는 전부가 그대로 면역계를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렇다.

1. 감염증을 방지(오래)하지 말도록

면역계가 가장 많이 소모(消耗)되는 사태의 하나는 오래가는 감염증이다. 원인불명의 발열, 취침중의 식은땀, 임파절(節)의 통증이나 부기(부증) 등을 방지해선 안된다. 그것들은 감염증이 숨어 있음의 징후이다. 모르는 사이 감염증에 걸리기 쉬운 부위는 구강(口腔·입)이다. 이빨이나 잇몸의 세균총(叢·떨기)은 몸의 면역력을 꽤 소모시키는 여러가지 증상의 원인이므로 구강위생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된다.

2. 함부로(조심하지 않고) 항생물질을 쓰지 말도록

면역계는 감염증을 처리하는 그 경험의 축적에 의해 같은 병원균에 대해 더욱 더 강하게 대항하게 된다. 싸움에 의해 면역계는 강화되기 때문에 감염증의 초기 징후일때 곧장 항생제를 쓰게 되면 면역계에 시련(싸움)의 기회를 뺏은 것이 된다. 항생물질을 걸핏하면 쓰게 되면 면역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3. 면역억제제(스테로이드)는 쓰지 말도록

면역억제제는 암의 화학요법이나 장기 이식의 경우 거절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흔히 쓰고 있지만 스테로이드는 위험하다. 오해되고, 남용되고, 과잉처방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마술처럼 없앤다. 그러나 스테로이드는 독성이 아주

병은 낫는다 체험적 養生法 ㉠<끝>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 (下)



권도홍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강하고 의존성도 높다.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질병을 눌러서 자연치유력이 활동할 기회를 뺏고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다른 치료법이 모두 무효 일 때 이외엔 어떤 형태의 스테로이드도 사용해선 안 된다. 중증의 증상으로 쓰지 않을 수 없을 때도 길어야 2, 3주에 그치도록.

4. 수혈은 피한다.

수혈 또는 혈액제제(製劑)의 주사에 의해 바이러스성(性) 질환(특히 간염)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 또 이종

(異種) 단백질을 대량으로 체내에 주입시킴으로써 면역계에 강력한 스트레스를 준다. 위급시에 혈액보급이 없을 수 없으나, 외과수술을 받기로 미리 정해져 있다면 사전에 자기의 혈액을 채혈해 두었다가 그것을 쓰도록 의뢰할 일이다.

5. 방사선 피폭을 피한다.

진단용의 엑스(X) 선 검사와 전혀 다른 방사선 요법(療法)이 면역계에 미치는 위험을 미리 알아둘 일이다. 만약 방사선요법을 받지 않을 수 없을 땐 흉골(胸骨·가슴뼈) 위에 납(鉛)으로 된 차폐판(遮蔽板)을 놓도록 요구할 일이다. 의사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치료를 거부해야 된다. 그 부위에 있는 흉선(胸腺)은 면역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이다. 그 흉선이 망가진다.

※ 위암수술을 받았으나 몇 개월 뒤 재발(정기 검진에서 놓친듯)로 방사선치료를 연속으로 25회 받고, 항암제 주사를 1회 3번씩 총4번(도합 12회) 맞은 끝에 “내가 졌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후 배에게 생전에 나는 방사선 치료의 위험을 여러번 이야기 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암에 대해 수술로 환부를 들어내고 방사선 피고 항암제 주입하는 현대 의학의 한계는 통합의료를 주장하는 의사들에 의해 거듭 경고 받고 있다.

6. 유해물질과의 접촉을 피한다.

현대는 특히 간장(肝臟)의 수난시대다. 수많은 천연(天然)의 독물에 대

처하는 한편 거의 무한이라고 할 인공의 독성분을 처리해야 하므로 간장은 대단히 위험한 처지에 있다.

의약품, 식품첨가물(특히 착색료파워), 더러운 공기와 오염된 물, 가정에서 쉽사리 접촉하는 살충제·접착제 등 화학물질과 스트레스의 총화(總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암

에 대한 면역계의 방어력을 허물게 된다. 살아있는 동안 모든 유해화학 물질과 접촉하는 기회를 차단해야 된다. 부득이 접촉한 뒤에는 목욕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좋은물(생수)을 마시므로

써 땀을 흘려 독소를 배출하고 휴식과 영양섭취로 면역계를 보호해야 한다. 습관화가 필요하다.

7. 몸에 좋은 식사를...

불포화지방산을 지닌 식용유는 멀리한다. 그것이 들어간 식품은 먹지 않는다. 프리 레디칼(遊離鹽)을 형성하는 성질이 면역계 세포에겐 유해하다. 『프리 레디칼의 일종인 활성산소가 거의 모든 질병에 관여하며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므로 항산화(抗酸化·Antioxidant) 조치가 필수적이다.(필자주)』 단백질 섭취량을 줄인다. 단백질의 대사(代謝) 물질은 면역계에 부담이 된다. 저(低) 단백질 고(高)탄수화물 식품을 중심으로 신선한 과일·야채·섬유식을 섭취하는 식생활이 건강 전반을 위해서나 면역계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동물성 식품(소·돼지 등)에는 면역기능을 약화시키는 항생물질이나 스테로이드제가 흔히 남아있다. 우유 등 유제품도 최소한도로.

8. 항산화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한다.

베타 카로틴(Beta-Carotene)은 물에 녹는 수용성(水溶性)의 비타민A 전구체(前驅體)다. 섭취하면 몸속에서 비타민A로 변한다. 광범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폐암환자의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건강한 사람보다 낮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므로 폐암과 자궁경(頸)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기름에 녹으며 독성을 발휘하는 수준까지 체내에 축적되는 비타민A와는 달리 베타카로틴은 안전

하다. 천연 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주스를 매일 마시거나 호박·고구마·시금치 등 녹황색 야채를 넉넉하게 섭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루에 2500IU (국제단위) 한 정(capsule)이면 족하다.

비타민E, 황산화작용이 있는 영양보조식품이다. 40세를 넘으면 하루에 400IU를 두번 섭취한다. 확실한 흡수를 위해 약간의 기름기가 필요하다. 올리브 기름 (첫물에 짠 Extra Virgin) 티스푼 한 순갈과 함께 섭취하면 된다. 비타민E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脂溶性)이기 때문이다.

비타민C, 제3의 황산화 영양보조식품인 비타민C는 식품보조료로도 쓰일 만큼 항산화 작용이 강하다. 한꺼번에 많이 복용하더라도 오줌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일정한 혈중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나누어 섭취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루에 1000밀리그램(1그램)을 두번, 가능하면 세번(3000밀리그램)이 더 낫다. 보통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C는 신맛이 강해서 위(胃)를 자극하고 이빨의 에나멜질(質)을 손상시킬수 있으므로 채식주의자용의 무산(無酸·Non-Acidic) 비타민C가 낫지만 약국에서 파는지 모르겠다.

셀레늄(Selenium)은 비타민E의 50배내지 100배의 강력한 항산화력을 지니고 있는 미량(微量)금속이다. 땅(토양)속에 들어있으나 곳에 따라 셀레늄 함량은 현저히 다르다고 한다. 현저한 항암작용이 있으나 섭취량이 지나치면 독성을 발휘하므로 하루에 200mcg(마이크로 밀리그램) 1캡슐이면 족하다. 1000mcg이 1밀리그램(mg)이므로 5분의1 밀리그램으로 족하다는 이야기다.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므로 복용시간의 간격을 30분이상 두는게 좋다. 비타민A가 되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E를 합치면 비타민ACE(에이스)가 되고 거기가 셀레늄이 가세(加勢)하면 무적의 항산화력을 발휘한다는 말이 있다.

면역력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끝낸다. 회갑을 넘기고는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더니 때를지어 몰려 오는 크고 작은 트집을 병원에선 진단만 받고 스스로 고치기로 한 그 병력(病歷)을 되돌아 보면 좀 지겹다. 그러나 병원에 실려가 드러 놓지 않고 집에서 아침에 눈뜨면 ‘아! 집이구나’ 하던 날들이 고맙기만 하다. 온갖 병 다 고쳐도 늙는 병은 못 고친다는데 antiaging이니 불로혁명(不老革命)이니 하지만 80을 넘으면 30대 기준으로 면역력이 50%이하로 떨어진다는데 무슨 재주로. 범사(凡事)에 감사하고 욕심도 줄이고 마음 잔잔하게 제일이다 싶다. 마음이 주인이고 몸은 종인지라 주인은 편안하고 좋은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심신(心身)이 부지할 수가 없다. ㉠

58th 창립 58주년 기념

한국산업은행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12-03-034호(2012.03.28)

대한민국 경제의 역사는 산업은행의 역사입니다



KDB산업은행, 새로운 100년에 도전합니다

수출 100위에서 7위로, 약소국에서 G20의장국으로, 대한민국은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위해 달려온 KDB산업은행
기업공개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습니다

**KDB산업은행 창립기념
공동가입 정기예금 판매**
(2012년 3월 26일 - 5월 31일)

최고 연 4.40%
12.3.26 현재
세전기준, 1년

- 판매규모가 커질수록 이율도 더욱 높아집니다
 - 행사 기간내에 가입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 총 판매금액 지급이자 일부는 은행부담으로 소외지역 청소년 운동 유망주들을 위해 기부합니다
 - 판매기간 중이라도 판매한도 소진시 조기종료합니다
- 고객센터 1588-1500 / www.KDB.co.kr

스페인 ‘광장문화’와 한국의 ‘시위광장’



이규섭

- 본보 편집위원
- 칼럼니스트

感 시간여행

태양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과 해양대국의 영화가 서린 유럽의 땅끝 포르투갈을 거쳐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최근 다녀왔다. 스페인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42개나 보유한 관광대국이다. 1082년 알폰소 6세가 무어인을 몰아내고 수도로 삼았던 톨레도 구시가지와 이슬람과 유대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코르도바 구시가지, 대학도시 살라망카는 도시전체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퇴색한 고서의 책장을 넘기듯 문화의 향기에 흠뻑 취한다. 릴케와 헤밍웨이가 사랑한 절벽위의 도시 론다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장을 둘러보았고, 그라나다 알함브라궁전의 감흥은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 기타선율로 가슴에 잔잔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고향 스페인 제2도시 바르셀로나에는 그의 미완성 걸작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비롯하여 구엘공원과 물결모양의 카사밀라 연립주택 등 6개의 건축물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곁길한 건축가임에 틀림없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제패한 황영조 선수의 조각상이 세워진 몬주의 언덕에서니 한국인의 자긍심이 뿌듯하게 솟구친다.

국경 없는 국경을 넘어 포르투갈에 도착한 뒤 해질 무렵에 둘러본 파티마 대성당.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광대한 광장과 64m 높이의 거대한 탑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절로 숙연해진다. 1917년 ‘성모 마리아 발현’을 목격한 세 어린이 목동 가운데 생존해 있던 루치아 수녀가 지난 2005년 2월 97세를 일기로 선종(善終)하여 ‘발현의 신화’는 실감 있게 다가온다. 유라시아대륙의 서쪽 땅끝, 까보다르카에서 검푸른 대서양을 바라보며 내 삶의 끝은 어디인지 사념에 젖어본다. 격랑의 역사를 간직한 고풍스러운 도시 리스본에는 아직도 노란색 작은 트램이 산중턱을 오르내리며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실어 나른다.

스페인 타리와 항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아프리카 모로코 탕헤르까지는 14km. 뱃길로 40여분 거리지만 삶의 양식과 문화의 차이는 지중해처럼 넓다. 모로코 중세도시 페스의 천연 염색 공장 인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인도의 도비카트를 연상시켰고, 거미줄처럼 엉킨 메디나 미로의 열악한 삶과 라바트 학산 탑의 위용은 빈부의 격차만큼

스-포-모기행



가우디의 미완성 걸작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의 황영조 조각상.



채색 타일 공예가 아름다운 스페인 광장.



만남과 축제의 살라망카 마요르 광장.

대조적이다. 하얀 집을 연상하며 찾은 카사블랑카는 영화 속의 환상이 담배 연기처럼 허공에 흩어진다. 탕헤르에서 스페인으로 나가는 관광버스 밑바닥에 숨어들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려던 모로코 청소년이 경찰에 끌려가는 자포 자기의 무표정이 아리게 가슴을 파고든다.

이번 여행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스페인 현지가이드의 열성과 해박한 지식이다. 딱딱하기 일쑤인 신화와 설화, 종교와 예술을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풀어준다. 구수한 입담에 시의적절한 유머, 음악과 영상자료로 지루한 이동시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클래식기타 작곡을 공부하러 스페인에 유학 왔다가 정착한 지 23년째라는 그녀는 (사)재 스페인 한국관광통역가이드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호랑이 아줌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카리스마가 넘치고 직업의식이 투철하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좋았다.

視 스페인 광장문화

스페인 광장은 스페인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로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 로마에도 있고, 서태평양 광의 주도 하गत나 도심에도 있다.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하여 17개 주도(州都)는 물론 도시마다 조성된 크고 작은 스페인 광장은 역사와 문화의 심장이다. 마드리드 ‘스페인 광장’의 상징은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의 석상. 그 앞에는 풍차를 향해 창을 뽑아 돌진 하는 이상주의자 돈키호테가 말을 탄 채 긴 창을 거머쥔 청동동상과 현실을 일깨워 주는 조연자 산초 판사가 중절모에 가죽장화를 신고 뒤를 따르는 모습이 연못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스페인 대학도시 살라망카 구 시가지의 플라자 마요르 광장은 정사각형 추리게라 양식으로 고풍스러운 멋이 넘친다. 회랑은 원기둥으로 연결되어 '살라망카의 거실'이라는 애칭이 어울린다. 북쪽 건물은 市 청사로 쓰이고, 로얄 파빌리온으로 불리는 동쪽 건물은 부자들의 주거지다. 1층은 대부분 상가와 카페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광장에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퍼포먼스가 열리는 문화와 생활의 공간이다.

안달루시아지방의 중심도시 세비아 ‘스페인 광장’은 김태희와 한가인이 CF를 촬영했던 곳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풍경이다. 1929년 이베로-아메리카박람회 기념으로 건립된 극장식 반원 형태의 붉은 벽돌 건축은 아라비아풍의 무데하르 양식으로 웅장한 자태를 뽐낸다. 광장과 맞닿은 외벽에는 스페인 58개 지역의 지도와 그 지방의 역사를 채색 타일로 장식해 놓았고, 4개 지역을 상징하는 반원형 구름다리는 물론 가로등까지 타일로 장식해 타일공예 전시장처럼 아름답다. 분수에 걸린 무지개가 눈부신 햇살을 머금고 이방인을 반긴다.

월드컵 응원의 함성과 붉은 물결로
넘실거리던 시청 앞 서울광장과 특색

15면으로 이어집니다.

溫故知新

宣祖와 仁祖

5천년 오랜 우리 민족사에서 나라를 멸망의 위기로 빠뜨린 임금도 많았는데, 선조(宣祖) 이균(李鈞)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예나 이제나 국가 최고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하고 리더십이 없으면 국정은 표류하기 마련이다. 조선왕조는 27명의 국왕 가운데 선조의 재위 기간만큼 다사다난했던 적도 없었다. 그의 재위 중에 동서당쟁이 시작되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선조가 재위 41년 내내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은 도외시한 채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그의 비정상적 즉위과정에서 비롯됐다. 선조는 명종(明宗)이 후사 없이 죽는 바람에 조선왕조 사상최초로 방계승통에 의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는 중종(中宗)의 서손 가운데 한 명이었다. 후궁 창빈 안씨가 낳은 중종의 아홉째아들 덕흥군의 셋째아들로 태어났으니 정상적 상황이었다면 국왕 후보에도 끼지 못할 서열이었다. 그런 까닭에 선조는 재위 내내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에 시달렸으며, 이는 결국 신하들과의 불화, 또 자신의 아들 광해군과의 불화로도 나타났다.

마치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나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자들처럼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가 컸던 만큼 선조의 왕권 안보에 대한 집착은 병적이었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백성을 버리고 피난가면서도 그는 어제는 동인, 오늘은 서인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당쟁을 자신의 왕권 안보에 악용했다. 또한 장수들을 의심하고 시기하여 의병장 김덕령(金德齡)을 죽이고, 이순신(李舜臣)과 광재우(郭再祐)를 죽이려고 했으니 이는 이적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성격이 모질고 시기심이 강했던 선조는 결코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축옥사(정여립사건)에 대해서도 뒷날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내가 흉악한 성훈(成渾)과 악독한 정철(鄭澈)에게 속아서 어진 신하들을 죽인 것이다.” 1천 명에 이르는 인재를 참살한 기축옥사는 자신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서인의 손을 빌려 동인을 숙청한 사건이었고, 그 이면에도 자신의 왕권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음흉한 저의가 숨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직전 일본의 사정을 살피고 돌아온 뒤 전쟁이 있을 것 같다는 서인 황윤길(黃允吉)의 보고를 무시하고 동인 김성일(金誠一)의 보고를 수용함으로써 무비유한의 재앙을 당했던 것이다. 전쟁의 위험이 조금만 있어도 대비를 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기본 상식이거늘 선조와 동인은 왜적이 쳐들어오면 자신들은 무사할 줄 알았을까.

선조는 서울을 몰래 버리고 피난 중 개성에서 백성으로부터 이런 욕설까지 들었다. “상감은 그동안 민생은 뒷전이고 수많은 후궁의 배 불리기에만 열중했고, 후궁의 오라비 김공량만 사랑하는 것을 제일 계책으로 삼다가 오늘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어찌 김공량을 시켜 왜적을 토벌하지 않소?” 심지어는 “너 같은 것도 임금이냐?”면서



황원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돌팔매질을 하는 백성도 있었으니 그런 임금은 국왕도 아니고, 그런 정부는 정부도 아니었다.

선조는 재위 중 10여 차례에 걸쳐 ‘임금 노릇 못해먹겠다’며 마음에도 없는 양위극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는 물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쇼였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다. 임진왜란으로 국가가 멸망의 위기를 당했으면 서도 유비무환의 교훈을 무시하여 또 병자호란을 당했다. 인조(仁祖) 이종(李倧)은 선조의 다섯 번째 서자 정원군의 장남으로 태어나 광해군(光海君) 15년(1623)에 일어난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올랐다.

인조는 천명사대주의를 추구하는 서인의 추대로 즉위한 만큼 후금(後金·청나라의 전신)과는 적대관계를 유지했다. 후금은 조선과 명나라가 미개한 오랑캐라고 깔보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였다.

인조 14년(1636) 청 태종(太宗)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었다. 청 태종의 즉위식에 가지못해 참석한 조선 사신들은 “하늘에는 두 해가 있을 수 없듯이 두 종주국을 섬길 수 없다”면서 절을 거부했다. 측근에서 목을 따야 한다고 펄펄 뛰었지만 청 태종은 두 사신을 돌려보내고, 웅알다이를 조선에 보내 인조를 책망하는 한편, 이제부터

는 형제지국이 아닌 군신지국의 예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조정은 명분론이 우세하여 인조는 청국 사신을 만나주지도, 국서를 받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사신을 죽여 버리자는 말까지 나오자 웅알다이는 도망쳐 청 태종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화가 치민 청 태종은 그해 12월 1일 몸소 10만 대군을 이끌고 심양을 출발하여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다. 이것이 병자호란의 시작이었다. 청군은 10일 안주, 13일 평양, 14일 개성 순으로 무인지경을 가듯 남하했다.

인조 15년(1637) 1월 30일, 인조는 소현세자(昭顯世子)와 함께 남색군복을 입고 청군이 보낸 말을 타고 백관을 거느리고 남한산성을 나서 한강변 송파나루 삼전도(三田渡)의 항복식장으로 내려갔다. 인조는 100보를 걸어나가 먼저 맨땅에서 삼배구고두, 즉 한 번 절할 때마다 세 번씩 머리를 조아리며 세 차례 절을 했다.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서 다시 삼배구고두를 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항복식이 끝날 무렵 청 태종이 담비모피로 만든 갑옷 두 벌을 주자 한 벌을 입고 땅에 내려가 다시 삼배를 했다.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자에게 하루에 열두 차례나 큰절을 올렸으니 치욕도 그런 치욕이 다시 없었다.

그렇게 사상 전례 없는 치욕을 당한 인조는 전쟁이 끝나자 인질로 끌려갔다 돌아온 소현세자를 왕권안보의 걸림돌, 즉 정적으로 여겨 독살했으며, 며느리 강씨와 두 손자까지 죽여 버렸으니 참으로 비정하고 악랄한 아비요 시아비요 할아비요 임금이였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천성이 잔인하고 교활한 지도자, 무능한 지도자, 사안마다 좌고우면하고 우유부단한 지도자, 존재 자체가 재앙과도 같은 지도자가 끌고 가는 나라의 앞날에 희망은 없다. [4]



본고장 세비아에서 본 플라멩코.

14면에서 이어집니다.

없는 광화문광장은 ‘텐트 시위’와 ‘1인 시위’ 메카로 변해 자괴감이 든다. 서울광장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시위대가 밤이면 음주와 흡연을 일삼자 급기야 서울시가 준법과 질서유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광장 인근 호텔투숙객은 물론 덕수궁 수문장교대식을 구경하는 외국관광객들에게 천막

시위가 어떻게 비쳐질지 부끄럽다.

樂 플라멩코 & 파두

플라멩코는 태양을 닮았다. 춤사위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리듬으로 열정을 발산한다. 폭 넓고 화려한 댄서의 치맛자락은 불꽃처럼 너울거린다. 안달루시아의 영혼을 온몸으로 불태우는 환갑이 지났다는 집시 여인의 표정에 희노애락이 일렁이고, 손놀림은 현란하다. 마룻

바닥을 내려치는 남자 무용수의 절도 있는 구둣발 소리는 심장을 내려치듯 역동적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플라멩코의 본 고장, 세비아 전용극장에 들러 상그리라 한잔을 주문해 마시며 플라멩코를 보니 “올레”가 절로 나온다. 집시의 춤 플라멩코를 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자유와 방랑 속에 스스로를 찾아나서는 집시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든다.

플라멩코가 집시의 영혼이라면 포르투갈의 전통음악 파두(FADO)는 恨의 정서가 우리의 판소리와 비슷하다. 머나먼 바다로 떠난 선원과 사무친 그리움으로 기다려야 하는 포르투갈 여인의 숙명이 파두의 선율에 녹아 애잔하다. 리스본에는 레스토랑 파두 공연장이 즐비해 식사를 하면서 들을 수 있다.

食 빠에야 & 쿠스쿠스 & 바칼라우

해외여행에서 빠뜨릴 수 없는 즐거움은 그 나라 전통음식. 스페인 바르셀로나 선창가 레스토랑에서 에스파냐 전통요리 빠에야(Paella)를 맛본다. 프라이팬에 쌀과 고기, 해산물, 사프란(향신

료)을 넣어 찐 볶음밥의 일종. 쌀이 고두밥처럼 설어져 개인적으로는 별로다. 모로코의 전통음식 쿠스쿠스(Couscous)는 좁쌀에 닭고기를 넣고 그 위에 야채를 얹어 찐 요리. 별도로 먹거나 아랍식 빵에 쿠스쿠스를 얹어 먹기도 한다. 밥과 감자, 야채와 곁쭈하게 삶은 팔이 입맛에 맞는다. 모로코 페스의 쿠스쿠스 전문식당은 타일장식 등 인테리어가 깔끔하다. 종업원은 월드컵 응원가 “대한민국~”를 외치며 반긴다. 내게 다가와 볼펜을 선물하라는 데 여유분이 없어 못 준 게 못내 아쉽다.

포르투갈의 전통음식 바칼라우(Bacalhau)는 말린 대구를 물에 불려 소금기를 뺀 뒤 잘게 찢어 양념을 한 뒤 감자, 양파와 소스를 곁들였는데 찐편이다. 감자와 사프란을 넣은 수프와 빵이 먼저 나오고, 메인요리가 끝나면 디저트로 과일이 나온다. 바칼라우 보다는 리스본 제로니우스수도원 옆에 있는 100년 전통의 ‘벨렘빵’ 맛이 오히려 혀끝을 감친다. 겉은 바삭바삭한 데 속은 카스텔라처럼 부드럽다. [4]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③

꽃꽂한 허리와 등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젊음은 꽃꽂하고 당당히 허리와 등을 펴는 데서 시작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인이라고 하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단장을 짚는 사람’으로 여겼다. 옛날 어린이가 즐겨 부르던 자전거 노래 말 속에 ‘꼬부랑 영감’이 나올 정도였다. 지금도 전철이나 버스 등 노인 우대 좌석 표시엔 구부

러진 허리에 단장을 짚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이가 들면 등이나 허리가 굽어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하는 것을 자연스런 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최근엔 80, 90대가 되어도 척추가 곧고 어깨를 활짝 펴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고령자가 많으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람은 허리와 등이 굽으면 육체적인 활동이 제약을 받아 같은 연령대 사람들보다 더 빨리 노쇠해 진다. 척추 통증은 물론 디스크나 척추협착증 같은 각종 척추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며 편안한 수면을 하기 어려워진다.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해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만성퇴행성 질환 진행이 더 빨라지게 된다.

우리의 건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

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노년의 허리와 등굽음과 굽음은 더욱 그러하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가 허리가 굽어지고 어깨가 움츠러들며 허리나 등이 굽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통 때 몸을 바르게 하고 운동을 하면 당당하고 꽃꽂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다.

허리는 먼저 굽어지고 후에 서서히 굽음으로 진행된다. 허리를 장기간 쓰지 않아 유연성이 떨어지면 굽음이 고정화 된다. 등 굽음은 어깨 움츠림으로부터 시작한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며 이러한 자세를 장기간 지속할 때 그런 모습으로 고정된다.

젊은 사람과 같이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걸을 때, 서 있을 때, 식탁에서 음식 먹을 때, TV 시청할 때, 화장실에서, 책을 볼 때, 옷 입을 때 등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허리와 등을 꽃꽂이 펴는 생활을 습관화 하면 당당한 허리와 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허리와 어깨 및 등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금상첨화다. [圖]

토요건강포럼

5월 12일엔 ‘전립선 암’ 강의

“자- 우리 몸안에 불덩어리가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이걸 이동시키는 겁니다. 구령을 부르면서 하세요. 이제 배꼽 아래 하단전부터 시작합니다. 하단전부터 온 몸을 한바퀴 도는 겁니다”

“하단전-!, 회음-!, 미려-!, 명문-!, 대추-!, 옥침-!, 백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배꼽아래), 회음(생식기와 항문 사이), 미려(항문주변), 명문(엉덩이 바로 위), 대추(목뒤의 척추), 옥침(뒤통수), 백회(머리끝), 상단전(눈위), 중단전(가슴)-

“이제 다 돌렸습니다. 어떻게 감이 드십니까?”

지난 4월 14일 토요건강포럼 강의에 참석 회원들이 눈을 지그시 감고 꽃꽂하게 앉아 다함께 소리내며 구령을 부르고 표정 또한 진지하다. 돌리는 것은 무슨 물건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마음 속으로 내 몸안에 있는 상상의 불덩이를 돌리는 것이다..

이 상상의 불덩이가 돌면서 내 몸



氣 수련 실습을 하고 있는 회우들.

안에 막힌 기를 뚫어줘 심장병, 신경쇠약, 신장병과 기타 상반신의 질병 등 각종 병을 낫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강사인 맹필재 기공인을 따라 소주천속성법(小周天速成法)인 두손 비비기, 마른 세수하기, 마른머리빗질, 머리 두드리기, 귀 문지르기, 선학 점수(학이 걸을 때 앞뒤로 왔다갔다하는 머리 모양)등을 실습했다.

참석한 회우들은 1시간 넘게 실습을 끝내고 손수건을 꺼내 흘린 땀을 닦은 후 강사인 맹필재 기공인과 이윤수 박사 등과 함께 인근 맥주집으로 향해 시원한 생맥주와 치킨을 들며 못다한

언론가 소식

NIE수업 학교 휴업일 공백 메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이 지원하는 다양한 토요 NIE(신문활용교육) 수업이 4월부터 전국 169개 기관에서 본격 실시되고 있다. 주 5일제 전면 실시에 따른 공교육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올해부터 확대 운영되는 프로그램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토요 NIE교실’을 비롯하여 ‘학부모NIE 연수’, ‘신문을 활용한 언론인 특강’ ‘신문제작체험교육’ 등이 있으며 재단이 운영비를 전액 지원한다. 토요 NIE수업을 하는 기관은 초등학교 44개교, 중학교 47개교, 고등학교 43개교, 도서관 15곳, 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5곳, 기타(수련관 등) 15곳 등 총 169개 기관으로 4,200명이 교육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2회 서재필 언론상 시상



서재필기념회(이사장 안병훈·본회 회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본회 회우)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가 후원한 제2회 서재필 언론상 시상식이 4월 9일 오후 5시 프레스센터 19층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있었다.

대한언론인회 후원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 다수가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서 조선일보 류근일 전 주필이 서재필 언론상을 수상했다. (사진)

고 장기영 사주 35주기 추모식

한국일보 창간 발행인 고 백상 장기영 사주의 35주기 추모식이 지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은 특히 오랜만에 참석한 후원기 회장이 스폰서가 됐다.

한편 5월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토요건강포럼은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어 자칫 증상이 악화되는 ‘전립선암’의 진단과 예방에 대해 알아보는 ‘전립선암 알면 이길 수 있다’를 전립선 전문의 조성완 박사의 강의로 알아본다. 전립선암은 최근 투자의 달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전립선 1기암 판정을 받아 오는 7월 중순부터 두 달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게된다고

난달 10일 경기 하남시 창우동 묘소에서 열렸다. 장재구 한국일보미디어그룹 회장과 임직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흥원기 본회 회장 등이 분향하고 있다. (사진)

제56회 신문의 날 기념행사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지난 4월 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56회 신문의 날을 기념해 ‘신문의 가치, 신뢰 회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토론회의 발제는 이화여대 이재경 교수가 맡았다. 이어 오후 6시부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념 축하연에는 본회 후원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정계 재계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2012 한국신문상 시상

한국신문협회는 4월 6일 오후 4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12 한국신문상을 시상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뉴스 취재부문 수상자로는 조선일보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 봄이 오면 무너진다’와 매일신문의 ‘K2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 이자 변호사 독식’ 제하의 보도가, 기획탐사보도 부문에는 중앙일보의 ‘불평등한 건강 보험료’와 경인일보의 ‘세계의 전장 인천, 평화를 말하다’라는 제하의 보도가 뽑혔다.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세미나

관훈클럽은 5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한·중 관계의 내일을 묻는다’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중 관계 전문가인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특히 중국 청화(淸華)대학의 추수룡(楚樹龍)교수와 북경(北京)대학의 주봉(朱鋒) 교수가 초청되고 한국 측에선 정덕구(鄭德龜) NEAR 재단이사장과 김흥규(金興圭) 성신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圖]

AP,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바 있다. 그런데 전립선암은 미국 남성 6명 중 1명꼴로 발견될 만큼 흔한데 예후가 좋아 그로인한 사망자는 36명중 1명꼴이라고 미국 암협회가 밝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립선질환을 경험하는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조성완 박사는 이제는 청장년 남성 10명 가운데 3명꼴로 전립선염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나는 좀 젊으니 까 괜찮겠지 하면서 방심하면 큰 코를 다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圖]

이보길 건강포럼 간사記

CBS Multimedia Group

M y S m a r t L i f e s t y l e

나의 스마트 라이프스타일 CBS

나의 생활속에서 만나는, 더 빠른 뉴스와 정보
더 다양한 음악, 더 가까운 말씀과 찬양. The Smart CBS입니다

-  뉴스 시사 FM 98.1
-  음악중심 FM 93.9
-  케이블TV
-  스카이라이프 ch412
-  Olleh TV ch557
-  스마트 미디어 어플리케이션
-  노컷뉴스
-  새로운 뉴스 www.nocutv.com
-  무료일간신문
-  인터넷라디오 레인보우
-  팟캐스트
-  twitter @CBS4U, @Nocutnews, @cbssisa, @cbsjoy



news Nocut

회우동정

가나다순

지인들에 도서기증



강승훈(전 대한일보 편집부국장) 회우=박윤식(1928년생) 목사가 출간한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4권 100부를 사비로 구입해 지인들에게 나눠주었다. 역사를 좌우 치우침 없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한 이 책을 지인들에게 배포한 것은 "되도록 많은 국민들이 바른 역사관을 지니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관훈저널에 미니회고록



구종서(한국문명사연구소 대표) 논설위원=관훈저널이 발행하는 관훈저널 2012년 봄호에 장문의 '미니회고록'을 기고.

한국방송기자클럽 고문



마 권 수 (KBS여맥 회 회장 · 사진 위 왼쪽), 박 우 정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사진 위 오른쪽), 이흥기(전 KBS파리총국장 · 사진아래 왼쪽), 이 휘(전 YTN 사외이사 · 사진아래 오른쪽) 회우=지난 4월 6일자로 한국방송기자클럽 제12대 회장단 고문으로 추대.



오른쪽), 이흥기(전 KBS파리총국장 · 사진아래 왼쪽), 이 휘(전 YTN 사외이사 · 사진아래 오른쪽) 회우=지난 4월 6일자로 한국방송기자클럽 제12대 회장단 고문으로 추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부회장



박동은(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회우=최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부회장으로 영전.

한국방송기자클럽 부회장



심의표(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본회이사=지난 4월 6일자로 한국방송기자클럽 제12대 회장단 부회장으로 추대.

한국방송기자클럽 이사



이철영(전 KBS 부다페스트 특파원) 회우=지난 4월 6일자로 한국방송기자클럽 제12대 회장단 이사로 추대.

'방송기자 저널' 인터뷰



유자효(국제펜 한국본부 이사장) 회우=한국방송기자클럽이 발행하는 월간 방송기자저널 4월호에 '방송인과 문인으로서의 두길 계속 걸어 나가' 인터뷰.

한국방송기자클럽 BJC회장



오건환(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회우=4월 6일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이취임식에서 11대 임기를 성공리에 마치고 12대 회장단 BJC회장으로 추대됐다. 방송기자클럽은 방송사별로 돌아가며 회장을 맡고 있다.

월간 한울문학 문학상수상



이학주(전 한국경제 편집부장) 회우=사단법인 한울문학회가 주는 신인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 회우는 한울문학 5월호 시인으로 등단했다.

한국일보 감사 재선임



홍원기 본회 회장=지난 3월 30일 열린 한국일보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재선임됐다. 홍 회장은 한국일보 사회부차장 상무이사, 메트로신문사 상임고문, CBS노컷 뉴스 대표이사 회장 등을 역임했다.

철쭉의 명산 황매산으로 갑니다 본회 산악회 5월17일 山行

대한언론인회산악회는 화창한 봄날을 맞아 전국 최대 규모의 철쭉군락지를 자랑하는 합천 황매산으로 봄철산행을 떠납니다. 봄이면 수십만평의 대초원을 진홍빛 철쭉으로 화려하게 수놓는 황매산은 전국 제일의 등산로로 알려진 모산재와 고찰 영암사지, 영화촬영지로 이

름난 영화공원, 스위스 산악지대와 흡사한 산세, 수려한 합천호의 장쾌함과 어울리는 명산입니다. 철쭉축제행사기간(5.12~25)에 맞춰 찾아 가는 황매산 산행에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 산 행 지 : 황매산(黃梅山·합천-산청군) (A코스와 B코스로 나누어 산행함)
- 집합일시 : 2012년 5월 17일(목요일) 오전 7시 30분 (장거리인 관계로 정시에 출발합니다)
- 집합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정문 앞
- 회 비 : 20,000원
- 준 비 물 : 간식(산행 완료 시간이 오후 4시쯤이므로 간식은 중식 수준으로 준비. 산행뒤풀이 오후 4시 이후), 식수, 등산장비 등
- 연락문의 : 010-7276-6211(정운중) 010-3855-8624(이상호) 010-8461-5349(강진형) 010-2691-0084(나용경)

수지지역 퇴직 언론인 모임 일목회 8순회원 축하연 열어

경기 용인시 수지지역 퇴직 언론인 모임인 일목회 (회장 조용중)는 지난 4월5일(목) 저녁 월례회에서 금년에 팔순을 맞은 김동익(전 중앙일보사장) 박근숙(전 문화방송 상무) 송두빈(전 내외경제 편집국장) 회원의 축하 수연(壽宴)을 조촐하게 베풀었다.(사진) 김동익 사장은 이 자리에서 "세월이 너무 빠르고 무상하다"고 말했고 박근숙 사장은 "이렇게 선후배들의 축하를 받으니 감사하다"면서 "지금껏 무얼했는지 공허한 마음뿐"이라고 팔순 소회를 밝혔다. 송두빈 회원은 몸이 불편해 이



날 모임에 참석치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밖의 일목회 회원은 강한필, 김두겸, 김문진, 김영범,, 노철용, 오근영, 윤임술, 이문호, 이정배, 이한수, 정기정, 조규하, 최종철 씨 등이다. ☞

▶ 저서 보내주신 분 ◀

황원갑 회우= '불패-이순신의 전쟁' (2012)
오동환 회우= '한 중 일 한자와 한자어 비교사전' (2012)
이상우 회우= '우리의 대한민국' (2012)
정진석 명예회우= '두 언론 대통령 이승만과 박은식' (2012)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가나다순 괄호안 납입연도)

고두현(12)	이달영(11,12)
김두호(12)	이문조-
김상희(10,11)	(8,9,10,11,12)
김성묘-	이은명(10,11,12)
(입회비, 12)	이재권(12)
김종현(11,12)	장순재(11,12)
김준구(12)	전의식(12)
김철진(12)	정서구(12)
김한봉(12)	최종수-
나필성(12)	(37년생12)
민병문 (12)	탁성만(12)
박명근(11,12)	한광희-
성병욱(11,12)	(8,9,10,11,12)
송경섭(12)	홍용수(12)
송충섭(12)	
신성순(11)	2012년4월23일
안현태(13)	현재 접수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 주소·전화번호 변경 ◀

김유동 회우=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 서광 영남아파트 101-402
김진걸 회우= 017-340-6778
박문두 회우= 010-6363-9905
박진환 회우= 자택 070-8281-8851 010-2413-8851
신정호 회우= 서울 은평구 불광동 635 북한산 힐스테이트 1차 110동 704호
안광식 회우= 010-8750-9207
이경식 회우= (우 150-979)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3 코오롱 프레스텔 1206호
이재권 회우= 서울 서초구 우면동 61 성우빌라 101호
장 옥 회우= 010-7486-2472
최시중 회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아파트 11동 2301호
최희조 회우=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 대우 아파트 110-801

말산업을 선도하는 말육공기업
KRA 한국마사회

www.kra.co.kr

5,000만 馬力의 성장동력!

이제, 말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이 됩니다.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희망의 질주

자연이 더 깨끗해지는 녹색의 질주

국민이 더 건강해지는 행복의 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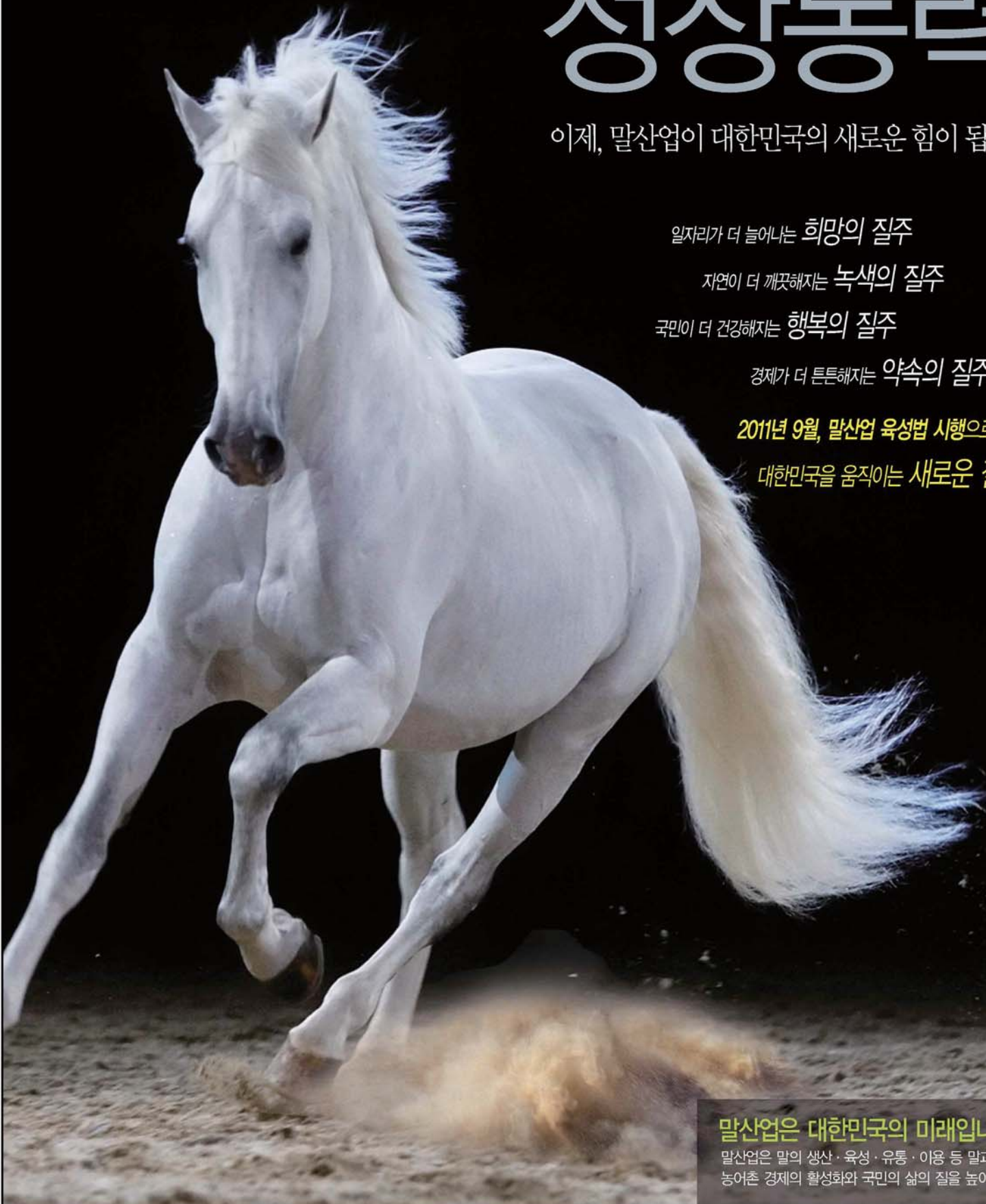
경제가 더 튼튼해지는 약속의 질주

2011년 9월, 말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새로운 질주가 시작됩니다

말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말산업은 말의 생산·육성·유통·이용 등 말과 관련된 국가 육성 사업으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신성장 산업입니다.



꼭 맞는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경기도 일자리 통합브랜드

G-일맞춤

취업지원, 인력지원, 창업지원, 교육훈련 등
경기도의 모든 일자리 지원 사업 명칭이 'G-일맞춤'으로 통일됩니다.
모든 도민들의 행복 일자리 'G-일맞춤'이 함께 합니다.



경기일자리센터 1577-0019 www.intoin.or.kr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